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온 이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 기도하며 청지기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월 31일 (토) 제 151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사이버전쟁, 인류 종말 부를 수 있다!

뉴스위크, '소니영화사 해킹은 사이버전쟁의 서곡' 경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이버전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4년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격정을 떨치고 폭탄을 사랑하게 된 사연'이라는 부제를 달고 개봉했다. 당시 원자폭탄에 대한 불안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다.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신기술이 현대의 삶을 끝낼 수 있다는 역설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지금은 핵폭탄보다는 사이버 공격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충분하다.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소니 영화사 해킹은 앞으로 닥칠 재앙에 비하면 아주 부드러운 서곡에 불과하다. 얼마 전엔 우크라이나의 해킹 단체가 독일 정부의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다. 더욱

정교하고 위협해지는 이런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바로 그런 사이버 공격이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된 현대의 '원자폭탄'인 셈이다. 다가오는 재난이며 다시는 병에 도로 넣어갈 수 없는 괴물 요정이다. 사이버 공격은 핵무기만큼 파괴적이거나 끔찍하지 않아 보이지만 세계가 두려움에 떨 가공할 무기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소니 영화사 해킹으로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이버 공격이 바로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 서곡에 불과하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Sony Was Just the Beginning).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사이버 공격이 핵폭탄과 같은 위력

사이버 해킹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는 결코 불필요한 기우가 아니다. 그만큼 사이버 보안에 정통한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오래된 두려움이다. 약 1년 전 마이클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해킹에 관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1945년 8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생각하면 된다. 해킹은 이전에 사용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롭고 전례 없이 강력한 무기다."

현재 우리의 삶은 컴퓨터로 제어되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는 지구상의 수십억 개 기기와 연결된다. 슈퍼컴퓨터, 랩톱, 휴대전화, 센서, 기계, 항공기, 기차, 자동차, MRI, DVR, 그리고 무기와도 당연히 연결된다. 복잡한 시스템은 현대의 바탕을 이룬다.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지구는 70억 인구를 지탱할 수 없다.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이런 시스템이 더 많이 필요하다.

사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런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장악하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시나리오엔 슬하다. 악당이 금융 시스



최근 세계 각국에서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이버전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템을 마비시켜 세계적인 공황을 일으킨다. 전력망을 망가뜨리고 댐의 수문을 열어젖힌다. 요즘은 농기계도 고도로 네트워크화

됐다. 추수기에 모든 콤파운을 못쓰게 만들면 식량 공급이 어떻게 될까? (3면으로 계속)

따뜻한 격려 한마디, 공동체 살린다!

스몰그룹닷컴, 성경적 상담학자 래리 크랩과 댄 알렌더의 격려 통한 영적성장원리 소개

오랫동안 동일한 멤버들과 소그룹을 하다보면 소그룹의 기반이 돼야하는 말씀의 진리보다 관계 그 자체가 중심점이 된다. 멤버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이 좋게 보일지라도 이러한 소그룹에는 커다란 위험요소가 내포돼 있다. 사람들이 말씀보다 관계를 우선하면 분열과 피상적인 태도가 조장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체험이 소그룹의 기준이 되어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다투게 된다.

또한 다른 분류의 소그룹이 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확실하게 정립된 신앙고백을 철저히 신봉하는 그룹이다. 이런 소그룹에 속한 크리스천들은 나름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확신은 자기만족이 되고, 교리의 정통성은 교조적 전통주의로 전락하곤 한다. 이러한 소그룹은 결국 성장이 더디고 전도의 열매가 없는 체질로 굳어진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든, 소그룹이든, 기도모임이든 그 무엇이든 그 자리에 모인 멤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장이 되어야만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안의 각종 모임은 목적을 잃어 갈등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그룹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격려다.

사랑에 근거한 동기로 상대 필요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 있어야 경고, 꾸짖음, 교정, 가르침, 설명, 공감, 반성, 노출... 방법 다양

일단 소그룹의 목적을 이해하면 답이 보인다. 소그룹이 유익한 자리가 되려면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배워야 한다. 교회는 원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평강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이들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공동체이다. 이 일에 모든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상대방이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세심하게 선택한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는 일이다.

말에는 위력이 있다. 야고보는 우리 혀가 몸에서 지극히 작은 기관이지만, 인간의 전 존재의 향방을 결정하는 위력이 있다고 말한다(약 3:5-6). 이는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뿌리를 둔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첫째로 더디게 말을 한다. 사람이 듣는 속도는 말하는 속도보다 세 배나 빠르고 쉽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생각한다. 그 결과 사연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어설픈 대답을 할 경우가 종종 있다. 더디 말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여유를 가져야 한다.

둘째로 당신이 하는 말에 민감해져야 한다.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성품과 그가 처한 환경에 적절한 말로 응수해야 한다.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훈련과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보라. "이 사람을 보듬어주는 데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면으로 계속)



2면

아프리카 대륙에도 IS세력 확장되고 있다!



8면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이진희 목사



8면

창조과학 칼럼 정우성 박사(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6면

시라큐스한인교회 유스 4명 마틴루터링상 수상

풀러신학대학원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정 능력을 잃은 한국교회"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들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바른 한국교회를 위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대안들이 가능할까요? 많은 이론과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결국 목회자가 절저히 낮아지며 변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한국교회의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풀러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은 그런 고민을 담아, 1995년부터 목회자들을 위한 재교육의 현황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학위를 위한 자리가 아닌, 현장목회 가운데 바른 신학적 분별력, 섬김의 리더십, 목회적 역량을 균형 있게 겸비한 목회자로 재무장하며 재현신 할 수 있도록 돕는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은 1)성경연구와 설교, 2)목회상담과 돌봄, 3)신학과 목회와 문화, 이 세 집중분야에서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코스워크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신학이 만나는 이러한 귀한 학습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인목회학박사과정의 학습목표

- 목회사역을 위한 성경/신학적 기틀 재확립과 소명의 재확인
-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기독교 가치/원리에 부합한 대안 모색
- 목회상황 분석능력배양과 다양한 사역에서의 목회기술개발
- 가정/교회/사회에서의 건강한 대인관계 개발
-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효과적인 리더십 및 영성/도덕성 함양

학위과정 개요

- 3개의 집중분야를 중심으로
- 코스워크 : 40학점 · 논문 : 8학점
- Tuition : 학점당 \$400
- 재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
-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여행보조금 지급

겨울학기 신학과 목회 강좌(공개세미나)

급변하는 세상에서의 한인 목회자 가정

- 강사: Jenny Pak 교수(풀러 심리학)
- 일시: 2월 23일(월) 9:45am-12pm
- 장소: Payton 301호 강의실

정규세미나(입학 후 수강가능)

- (2월) 소그룹 사역을 통한 성육신적 제자도 Gareth Icenogle 교수 (통역제공)
- (4월) 목회자를 위한 구약성경신학 / 이경진 교수
- (4월) 위기사역과 목회자의 자기관리 / 엄예선 교수



시론

부르짖는 야성을 회복하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지난 해 11월 11일 밤에 내가 사는 오렌지카운티의 엘바인 한 노천극장에서 다민족연합기도회가 열렸다. 한인들이 절대 다수를 이룬 7천여 성도들이 두 시간 동안 잠깐의 찬양을 부른 외에는 처절하게 부르짖었다. 주로 미국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다. 자신과 미국의 죄를 회개했고, 미국의 국가 지도자들과 정부, 그리고 교회와 학교와 가정, 그리고 문화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두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다. 대표기도자들이 기도제목에 말하고는 '주여 삼창'을 외친 후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시 대표기도자가 마무리 기도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함께 기도하는 외국인들도 '주어'의 의미를 알고는 다 같이 한국말로 외쳤다. 기도회의 열기를 통해 '소수라도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한 어떤 공동체든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날에 부르짖는 기도에서 미국의 희망을 읽었다. 두 주 전 우리교회는 성령대명산상기도회를 인근의 어떤 기도원에서 가졌다. 나는 특히 부르짖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다. 저녁 시간에는 각자 자기의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그동안 가슴 속에 응어리지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 모든 것들이 씻겨 내려감을 체험하였다. 자녀들 역시 부모의 진한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더욱 부르짖는 기도에 열심을 내기로 다짐하였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동인을 찾는다면 무엇보다 기도와 할 수 있다. 특히 부르짖는 기도가 한국교회의 특징이요 강점이다.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괄목상대하게 부흥한 요인 중에서 통성기도를 빼놓으면 말할 것이 없을 정도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 부르짖기에 적합한 기도원이 많이 있었고 그 곳에 가면 으레 비장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삼각산 기도원, 우곡 기도원, 대한 수도원, 금식 기도원 등등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부흥이 임하였다고 믿는다. 나는 기도할 때는 소나무 하나 정도는 뽑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을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들으며 성장하였다. 이렇게 부르짖는 교회가 한국교회였다.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경제 부흥과 함께 부르짖는 기도가 약해졌고 교회도 정체 혹은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꼭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시지 않는가? 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기도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답하고 싶다. 부르짖는 기도는 나를 일깨우는 기도요 나의 절실함을 표현하는 기도다. 또한 성경은 매우 강한 어조로, 반복적으로 부르짖으라고 강조한다. 시편에서만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60번이나 언급된 정도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쳐셨나이다"(30:2).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77:1).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81:10)는 말씀은 부르짖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어미 제비가 새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넓게 입을 연 새끼에게 먼저 준다고 한다. 어미 제비가 보기에 입을 크게 벌리지 않은 새끼는 입 안에 아직 삼키지 않은 것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함을 알려 드려야 한다.

신약성경에서도 주님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소리를 지르고 또 질러 응답을 받았다(막10).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조차 불쌍한 과부가 애걸복걸하여 그 청을 들어주셨듯이 하나님도 "그 밤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눅18:7)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셨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부르짖음의 모범을 보이셨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제자들이 들을 만큼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눅22:44) 될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하여 기도하셨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은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한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야성이 살아 있는 영권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렘29:12,13). 부르짖으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된다(렘33:3). 부르짖으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한다(막4:38). 부르짖으면 환란을 이긴다(시16:6). 부르짖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시30:2). 특히 우울증에 노출된 환자는 부르짖어야 한다(시61:2). 부르짖을 때 성령종만과 큰 능력을 받는다(행4:24,31). 부르짖는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프리카 대륙에도 IS세력 확장되고 있다!

BBC, 경제적 사회적 공핍이 초래한 이슬람극단주의단체 보코하람 소개

2015년 새해 벽두,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동부 도시 바가 지역은 피로 물들었다. 적게는 300명, 많게는 2000여명까지 살해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바가의 거리에는 보름 넘게 수습되지 못한 주검들이 썩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바가의 총성은 멎었지만 일주일 뒤 10살 소녀의 몸에 자살폭탄 조각이 입혀졌다. 시장 등에서의 자살 폭탄 테러로 20여명이 숨졌다. 그 일주일 뒤에는 인접국가 카메룬의 마을에서 민간인 80여명이 납치됐다. 50여명은 10-15살의 어린이였다.

서슴없이 이런 일을 자행한 집단은 '보코하람(Boko Haram)'이다. 이제 나이지리아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 민간인들까지 노리는 수준이

다. 보코하람을 이끄는 아부바카르 셰카우(Abubakar Sheka)는 인터넷에 올린 35분짜리 동영상에서 "우리가 바가 사람들을 죽였다. 알라께서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죽인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바가의 다국적군 기지를 공격해 확보한 무기를 들먹이며 "나이지리아를 전멸시키기에 충분하다. 아프리카의 왕들이여, 당신들은 늦었다. 지금이라도 나를 공격해봐라. 나는 준비돼 있다"고 자신만만해했다.

BBC는 아프리카에도 이슬람국가(IS)처럼 이슬람극단주의인 성전주의를 표방하며 세력 확장을 노리는 '보코하람'을 소개한다(Who are Nigeria's Boko Haram Islamists?).



보코하람 지도자, 아부바카르 셰카우가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점령한 지역이 칼리프 체제로 지배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BBC)

보코하람이 폭력적 테러집단으로 탈바꿈한 분기점은 2009년이였다. 당시 유수프의 처형으로 이어진 나이지리아 군경과 보코하람의 마이두구리 시가전이 어떻게 촉발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많은 외신들은 경찰이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수프 추종세력 10여명을 처형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보코하람이 2000년대 중반 보르노 주지사 선거에 개입하며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 중 하나라고 전했다. 표적 탄압이었다는 것이다. '형제'를 잃은 보코하람은 은행과 경찰서를 점령하는 등 대

'서구식 교육은 죄악' 뜻의 보코하람, 25개 도시 2만km² 영역 차지 선거 앞둔 나이지리아 조너선 대통령 대량폭력 목인... 별 대책없어

전문가들은 18개월 전만 해도 보코하람의 전투대원이 4000-5000명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인근 국가들에서 돈을 주고 대원모집에 나서, 현재 세력이 얼마나 불어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코하람은 2002-2003년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이슬람 성직자 모하메드 유수프의 추종세력이 보르노 주의 주도 마이두구리 외곽지역에 모여들며 형성됐다. 유수프는 '코란을 엄격하게 근본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또 나이지리아가 영국 식민지 시절 서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와 추종세력은 직선제에 반대하고 서구식 복장도 거부했다. 스스로 외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선택하며 지상에 '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다. 궁극적 목표는 나이지리아에서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른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나이지리아 주재 미국대사는

두 번 지낸 존 캠벨은 2011년 외교전문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보코하람을 조직화한 테러단체 또는 전통적 의미의 반군으로 보는 것은 오류"라면서, 보코하람이라는 이름은 경찰과 언론만 부르는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정식 명칭은 '예언자의 가르침과 지하드를 선전하는 (수니파) 집단'이다. 하지만 보코하람이라는 속칭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보코하람은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이며, 배타적 근본주의 종교세력인 이들의 속성을 잘 나타낸다.

지난해 7월 셰카우는 이슬람국가(IS)의 지도자 아부바크르 바그다디와 알카에다의 지도자 아이만 자와히리, 탈레반의 지도자 무함마드 오마르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후에도 셰카우가 바그다디를 찬양하는 등 보코하람은 이슬람국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프리카, 유라시아 전문가 제이컵 쟈는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은 보코하람이 산악지대에 머무르며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전투 방식을 버리고 이슬람국가처럼 영역을 넓혀나가기 시작한 시점과 같다"고 말한다. 그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이슬람국가와 달리 약체국들을 이웃으로 둔 보코하람이 오히려 이슬람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적인 반격에 나섰고, 나이지리아 군경은 무자비한 진압으로 맞섰다. 마이두구리에 있는 보코하람 본부 건물을 폭파하고, 유수프를 비롯해 추종자들과 민간인까지 800여명을 '즉결 처형' 했다. 그 당시 유수프 추종자들은 지하로 숨어들어,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보코하람은 무장투쟁으로 나이지리아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국가건설을 다짐했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subscription rate.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university name, founding year (1986), website, and details about degree programs (ESL, Bachelor, Master, Doctoral) and study options.

사이버전쟁, 인류 종말 부를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또 탐승하지 않고도 비행기를 납치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조종실 시스템을 지상에서 해킹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두려움은 해커들이 몇몇 나라의 핵무기를 장악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제 새롭고 흥분되는 '사물 인터넷'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 물리적인 세계 거의 전부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금융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인터넷서널 디시즌 시스템스 CEO 마이크 캠벨은 이렇게 말했다. "섬뜩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희망찬 시나리오가 생각났다. 내가 최근 구입한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 고기 온도계를 예로 들어보자. 누군가 그 온도계를 전부 해킹해 우리에게 수치를 잘못 알려줘 추수감사절에 동시에 모든 가정에서 칠면조 고기 기름에 불이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하는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다. "그처럼 이제 우리는 늘 피해망상에 시달리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더 무서운 것은 누가 또는 무엇이 공격할지 예측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핵무기의 경우 누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누가 그 무기를 손에 넣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반면 사이버 공격은 오지의 오두막에 사는 정신 나간 '외로운' 천재, 러시아의 조직범죄단, 중국군, 또는 파키스탄의 MIT 출신 탈레반 대원이 얼마든지 감행할 수 있다. 기술 후진국인 북한의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소니 해킹에 관한 최악의 소식은 그 공격이 너무나 단순했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은 계속 해킹당한다. 대부분의 경우 해커는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힌다. 그런 네트워크 침투는 주로 돈이 동이다. 해커는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정보를 훔치려 한다. 대형 할인점 타깃,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도구 판매업체 홈디포, 중화요리 연쇄점 등의 기업이 그런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소니 해커들은 데이터를 파괴하고 경영진의 개인 이메일을 유출함으로써 피해를 입히려 했다. 그게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해커들은 앞으로 더욱 악랄하게 나올 것이다.
미국 국토보안부의 컴퓨터 긴급 대응팀에 따르면 2009-2013

년 미군이나 미 연방정부 컴퓨터를 공격한 해킹 건수는 2만 6942건에서 4만6605건으로 늘었다. 시도 건수가 아니라 해킹 성공 건수를 말한다. 그 중 하나가 중요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시간문제다.
그렇다고 해킹을 막는 노력을 포기할 순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핵무기가 그랬듯이 세계는 이 위협을 막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 유명한 모험자본가 프레드 윌슨은 2015년 모든 기업과 정부 기관이 소니 해킹사태에 겁먹고 사이버 보안에 거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업체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누군가 해킹을 완전히 막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10년내 또는 더 먼 미래) 최초의 상용 양자 컴퓨터가 개발될지 모른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어떤 컴퓨터보다 처리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며 해킹이 불가능한 보호기술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허황하게 들린다. 위안은 되지만 아직은 설득력이 없다.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도 결국 문제는 사람이다. 예쁜 강아지 사진을 누군가가 보내줬다고 생각하고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파일을 아무런 의심 없이 내려

받으면 시스템 전체가 감염된다. 아니면 미 국가안보국(NSA)의 기밀을 빼돌린 에드워드 스노든처럼 누군가 내부에서 공작을 꾸밀 수도 있다. 수십억 명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시대엔 모든 인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조지아 공대의 사이버 보안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이제 인간은 사이버 공격의 최종 방어선이 아니며, 오히려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최상의 방책은 1945년 이래 핵공격을 막은 것과 유사한 국제적 노력과 정치적 긴장이다. 세계는 핵무기가 파멸을 부른다는 데 동의하고 핵무기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동시에 '상호확증 파괴' 원칙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라는 묵연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국제적인 규탄과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소니 영화사 공격은 그런 수준의 개혁을 추진할 계기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아니었다. 아무튼 해커들에 의한 중대한 사이버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방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경각심을 촉발하는 거대하고 폭넓은 '실존적 불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17편 :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자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것처럼, 아버지께서 어떠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다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데, 그때는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더 좋아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과 우리와 관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신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1절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큰 것을 받아 누리라는 모습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주시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앙이 자라게 되면 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작은 일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원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품에 흠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이해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멀리 있는 태양에서부터 땅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빛이 내려와서 우리를 만져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듯이, 아버지의 가슴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마음에 가득하게 받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은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신 이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적 일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것을 바라보고 불안과 조조함을 받지 말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태양의 열로 이 땅 위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끊임없이 나오는 사랑,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시작한 그 사랑,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롬8:35).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랑이 변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자식이 실령 부모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계속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다른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사랑과는 그 흐름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서 스스로 우리나라서 주는 그 사랑은 자식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차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땅에 있는 자녀를 향하여 나오는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출발해서 영원까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사랑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런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원인이 되어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어집니다.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공간 속에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마음에 받아들이야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도 IS세력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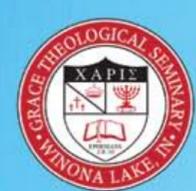
(2면에서 계속)
2010년 정부건물과 경찰서 등을 향한 몇 번의 자살폭탄 테러와 납치, 암살 사건을 시작으로 보코하람은 바우치주의 감옥을 공격해 자신의 세력 100여명을 포함해 700명이 넘는 죄수들을 탈출시켰다. 이때부터 그들은 북부 나이지리아를 벗어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다. 이듬해 8월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 있는 유엔본부에 폭탄 차량을 돌진시켜 23명을 살해했다.
보코하람이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것은 지난해 4월 치보크 시 여학교를 급습해 학생 276명을 납치하면서였다. 일부는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219명은 아직 행방을 모른다.
그동안 보코하람의 테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국외교협회(CFR)는 201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적어도 1만여명이 숨지고 지난해에만 최소 6700여명이 희생됐다고 집계했다. 보코하람을 피해 차드와 카

데온 등으로 도망친 주민도 1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전문가들은 보코하람을 나이지리아의 가난과 차별, 만연한 부정부패, 정부의 무능이 키운 '괴물'로 보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인 나이지리아의 1억7700만명 가운데 약 70%가 하루 1달러 정도로 삶을 이어가는 극빈층이다. 특히, 보코하람이 태동한 북부지역은 석유가 생산되는 남부와 나제르델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열악하다. 종교적으로도 북부는 무슬림, 식민통치 영향을 많이 받은 남부는 기독교도가 많아 두 지역이 극명하게 나뉜다. 캠벨은 초기 보코하람을 "이슬람의 옷을 입은, 조직되지 않은 분노 덩어리"라고 짚었다.
공평함 속에서 탄생한 '불만세력' 보코하람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와 군은 손을 못 쓰고 있다. 국력 조너선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보코하람의 행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보코하람은 조너

선 대통령 집권 시기에 급성장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3년 5월 북부 3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보코하람 격퇴를 위해 2만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올해 초 바가 학살이 벌어졌을 때도 조너선 대통령이 열흘 넘게 침묵으로 일관한 것도, 보코하람의 존재와 파괴력이 회자될수록 2월에 치러질 대선에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대선에서 조너선 대통령과 세 번째로 맞붙는 군 출신 무함마두 부하리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뜻이다. 부하리는 보코하람 세력이 강한 북부 3개 주 무슬림들에게 전폭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앞선 두 번의 선거에서 조너선 대통령이 패배했다. 아프리카 전문가가 마틴 로버츠는 "조너선 대통령이 부하리 지지자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코하람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보코하람 격퇴에 투입된 나이지리아 군인들은 보코하람에 건넌 무기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나이지리아 국방예산은

50-60억 달러 정도인데, 캠벨은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겨우 총알 30발씩 지급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과의 전투를 거부한 군인 54명이 반란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군인들은 무기뿐 아니라 규모에서도 보코하람에 밀리고 있다고 불평한다. 부정부패도 고질병이다. 일부 병사들은 고위급에서 자신들의 월급을 가로채 식량 공급마저 달린다고 말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보코하람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전 조사에 나섰지만 기대를 거는 사람은 적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재판 당사자가 있는 나라의 도움 없이는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보코하람을 제압하지 못하는 나이지리아 당국이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참혹하게 살해당해도, 나이지리아인들을 보코하람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간다. 우선 첫째는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태어난 그대로의 본성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린 시절은 누구나 태어난 그대로 인생을 시작한다.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 자연인으로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둘째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작품들이다. 보라! 아이를 출산해놓는 것만으로 사람이 아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처음에 가정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학교 생활 그리고 이런저런 또 저런 사회에 적응해가면서 한 사람이 되

어간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끊임없이 미래의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세상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유교집안이 만들어놓은 사람이 있고 불교집안이 만들어놓은 사람이 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작품으로써의 사람들이다. 내가 나 됴에 있어서 아무리 스스로 자부심이 있다 해도,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살고 있다. 세상에 태어나 죄성을 가진 채 자연인으로 세상을 살다가 또는 세상의 이런 저런 환경과 교육 또는 훈련으

로 세상이 만들어가는 대로 만들어지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만나 자신의 죄성과 죄인됨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절 보면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만들어진 대로, 거칠고 역센 그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꾸 받다보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다. 이제 죄를 씻어내고 다시 보니 세상을 미련하고 무지하게 살아온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다.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보시라! 사실 돈이나 좀 벌고 먹고 마시고 실컷 취하고 놀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사는 줄로 알았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

왔다. 그렇지 않은가? 미국에 와서도 어찌하든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여기 저기 여유 있게 골프 여행이나 다니고 친구들과 파티나 즐기고 그런 정도가 되기까지 열심히 돈만 벌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드디어 나이드고 들고 그즈 되면 성공했다고 인생을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 않는가? 그런데 생각해보라? 마치 기계가 세월이 지나 녹슬거나 망가지면 고철가게에 갖다버리는 것처럼 돈 버는 기계처럼 돈 벌기 위해서 부서지라고 일하다가 몸이 세월이 지나 늙거나 병들면 장의사 손에 넘겨져 공동묘지에 버려지는 것 아닌가? 한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인생 하나뿐인 육체를 일생동안 조조 분羹 기계, 퐁 만드는 기계로 쓰다가 못 쓰게 되면 Mortuary에 버려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닌가?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 지도자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웨이스북에 올린 글이라며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에 보내왔다. “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멋진 펜션에 잠시 왔다가는 여행객들입니다. 적어도 지구를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고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펜션의 주인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다들 일경기가 후에 떠나는 것을 보면 이곳에 여행 온 것이 맞는 듯합니다. 단지 여행의 기간이 3박4일이 아닌 70년 80년 정도인 것뿐인데 우리는 여행 온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펜션의 주인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행객들은 마치 진짜서로 자기 집인 양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에 있는 여행객들이 한번 들어와 보고 싶어 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값을 치루고 들어보입니다.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다른 방을 빼앗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목숨을 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펜션 주인이 제공하는 햇빛과 물, 공기와 같은 너무나 비싼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면서 서로에게는 값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 펜션에 우리 것이 있을 까요? 우리는 여행객인 걸요! 마음씨 좋은 주인이 함

게 누리라고 허락해준 이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다 함께 여행을 즐기면 어떨까요? 여행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나에게도 딱 한 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딱 한번 있는 여행이니까요! 여기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은 모두다 딱 한번 있는 지구호실 여행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정말로 공감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다. 딱 한번 있는 여행 나그네 길이라는 말이다. 마음씨 좋은 펜션 주인이 누구겠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펜션에서 즐겁고 보람있는 인생여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인 것이다. 이 한 번의 여행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깨끗하게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한다.

푸/른/초/장

김종권 목사 (에틀랜드, 풍성한교회)



이 땅위에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라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떠한 새 일을 이루시며, 어떠한 일을 맡기시며, 또 어떠한 복(福)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과 복 받는 일에 관심을 두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바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니 생각만 해도 심령이 공허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는 주인과 종의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기록돼 있지요. 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인의 칭찬은 그가 주인의 신실한 종이요, 동시에 주인의 자랑스런 종으로 승격(昇格)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

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그의 소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칠천이요 약대가 삼천이요 소가 오백여리요 암나귀가 오백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요약해 설명하면 욥은 영육 간에 모든 것을 갖추고, 더하여 동방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으니(He was the greatest man among all the people of the East) 욥은 큰 축복을 받아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큰 인물로 추앙(推仰)받아온 사람이었음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여 받은 모든 축복 속에 살며 생을 부

하게 마칠 것으로 여겨온 욥에게 어느 날 예기치 않았던 고난의 회오리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욥에게 불어 닥친 그 고난의 정도는 인간으로서의 참으로 감당기 어려운

가지고 자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욥에게 쏟는 관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천사들에게뿐 아니라 사단에게도 자랑하고 계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오늘 말씀에서 ‘유의하여’-Consider라는 단어의 의미는 ‘생각하다’를 넘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때 묻지 않고 순결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욥은 그렇게 순전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입니다.

2. 하나님이 자랑하신 ‘내 종’ 욥은 정직한(Upright) 종이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직하여’라는 뜻은 인간사회의 윤리성을 의미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진실되며, 끈고, 올바르며, 대쪽같이 바르게 사는 사람의 의

신(神)의식을 갖고 산다면 생각할 수도 없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주의 종들에 의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참대한 목회현장을 이뤄놓은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더욱 빈번히 나타나 선한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더하여 최근에는 한국의 유명대 대형교회의 일부 목회자들이 성적(性的) 타락과 천문학적 액수의 금전적인 축재(蓄財)로 인터넷상의 SNS 화면을 뒤덮고 있으며, 도덕윤리가 내뿜어 처진 사건들이 뉴스화 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기 1장 6-8절)

죽, “자세히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 선 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란 자리가 깃들여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내 종’이라고 부르신 것에 초점을 맞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 족장, 사사, 왕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이라고 부르신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찾아보면,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창26:24),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의 길을 택한 모세(수1:7),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좇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민14:24), 하나님의 명을 무조건 좇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높인 고난의 종 이사야(사20:3), 하나님의 마음을 능히 헤아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다윗(삼하7:8) 등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을 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명명

3. 하나님이 자랑하신 ‘내 종’ 욥은 경건한(Godliness) 종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fears God)한다 함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언하면 이것이 믿는 이들의 신(神)의식인데 욥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입니다.

4. 하나님이 자랑하신 ‘내 종’ 욥은 악에서 떠난(Shuns Evil) 종이입니다.

악에서 떠났다 함은 하나님의 종은 사단이 주장하는 악한 일엔 절대로 관심을 뒀선 안되고 악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잠3: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렘전3:11). “악은 그 모양이냐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믿음의 사람들이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내 종’이라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자랑하신 욥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이라고 부르신 성경속의 인물들에겐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며, 어떠한 악중의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은 가족과 부귀가 모두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욥은 자식들을 두었었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고, 악장으로 건강을 잃었고, 아내로부터 악담을 들었고, 친구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꺾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고난가운데서도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욥1:21)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욥과 같은 이가 동방뿐이 아닌 이 세상에도 없다고(There is no one on earth like him) 오늘 말씀에서 크게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내 것을 잃고 손해를 보면 여체의 의리를 배신하고, 돌아서고, 믿음을 저버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이인가?” “나는 순전한가?” “나는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악에서 떠났는가?” 이 과제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풀기 위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명하고 잘못 됐으면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새로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관심가운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하나님이 자랑하신 ‘내 종’ 욥은 순전한(Blameless) 종이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의 뜻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Pure)하고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때 묻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죄악이 깊고 관영함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주의 종이 라고 자처(自處)하는 사람들에게 그 현상이 더욱 짙게 나타남으로 인해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터



저자: 라흥태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주론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론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판매)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March For Life 2015! 커져가는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

지난 1월 22일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여기서는 생명을, 또 한 소중한 여겨야 할 크리스천들에게는 매우 큰 승리와 기쁨의 소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낙태 반대 법안, 첫 단계 통과하다!

지난 2014년 중간선거 때 새롭게 뽑힌 보수파 정치리더들로 인해 그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되고 또는 Facebook에서 tvnext.org를 찾으시면 같은 내용링크를 찾아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름 (First, Last name)과 이메일, 우편번호(zip code) 만 넣으면 됩니다 (http://aclj.org/pro-life/demand-a-vote-to-defend-life)

워싱턴DC, March for Life 2015! 태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특히, 캐톨릭 교단과 학교들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각각 다른 도시, 주에서 수 십대의 버스를 대절해 1천여 마일들을 운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사 바로 전날 학교 운동장과 스타디움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룻밤 새우잠을 청한 후, “태아생명살리기” 운동에 참여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으로 가장 자금후원금을 많이 해 주고 있는 낙태시술소인 Planned Parenthood(PP)의 자체 리포트에 의하면 지난 6년 동안 낙태비용으로 30억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3년 PP리포트에 의하면 일년에 한 시술소에서만 327,653건의 태아들을 죽였고, 연방정부로부터는 무려 5억2천8백만 달러를 낙태 후 원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1백40만 달러 씩 우리의 세금으로

오바마건강보험 폐지 발의안 중 H.R.7 하원 통과 워싱턴DC, ‘태아생명살리기 운동’에 50만명 참여

을 목격하는 기쁜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 연방부에는 오바마건강보험(Obama Healthcare: ACA, HHS)을 폐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른 발의안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발의안이 이번엔 통과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뉴저지(공화당)의 의원이 스폰서해서 수많은 동맹한 스폰서들과 함께 No More Tax Funding Abortion Bill(H.R.7)을 작성 제출해 지난 22일에 우선 하원에서 242 대 179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미연방정부에서 더 이상은 오바마건강보험이든, 낙태시술소든 어떤 곳에든지 시민들의 세금이 낙태 후원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또 다른 발의안은 Pain-Capable Unborn Child Protection Act(HR36)로 애리조나의 Trent Frank(공화당)라는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3주후부터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들을 임신 20주가 넘어서도 잘라서 도막내고 잡아 죽이는 살인적인 낙태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조만간 법정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HR36 서명운동 긴급 요청 온라인 서명은 누구든지(남녀노소, 유학생, 5살짜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직접 가서도



같은 날 워싱턴DC에서는 “March for Life 2015-태아 생명 살리기” 행진이 있었는데, 낙태법안(Roe V. Wade)이 미국에서 통과된 지 꼭 42년만이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민들이 미전역 곳곳에서 몰려와 숫자를 셀 수 없는 행사로 5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각 “I regret abortion 낙태했던 것을 후회한다”, “I regret losing fatherhood아빠가 될 기회를 잃었던 걸 후회한다”, “Thanks for NOT ABORTING me 나를 낙태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I also want to live나도 살고 싶어요”, “Stand with those who can't stand for themselves” 등의 팻말을 가지고 행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천 명의 고등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앞장 선 것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Silent No More Rally! “더 이상 침묵은 금물” 운동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수만 명이 따로 이 행사를 1월 24일에 했는데, 다행히도 NBC, ABC에서 이 행사를 보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들이 함께 들고 전진한 배너의 메시지는 “낙태는 여성을 아프게 한다 Abortion Hurts Woman”라는 강한 메시지로, 그동안 낙태지지를 해오던 운동가들과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 주장하고 지지하는 “여성의 선택 Woman's choice”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문구라고 뉴스들이 다뤘습니다.

낙태 찬성 지지하는 정치인, 기업들의 이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민이 낸 세금

“낙태후원”을 받은 것이죠: http://www.christianpost.com/news/planned-parenthood-abortion-327653-babies-in-2013-received-over-528-million-in-federal-tax-dollars-132025/.

특히 오바마건강보험들을 통해서 보험 가입자들의 세금에서 낙태후원금을 자동적으로 나가게끔 만든 정책 때문에 30억 달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잔인하고 무참하게 살인하는 것에 사용되어 졌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H.R.7을 통과시키며 대표로 이야기한 Kevin O McCarthy(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연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정치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이다. Roe v. Wade 낙태법안 통과 이후 우리는 56millions의 태아생명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 앞으로는 이 법안을 통해 모든 생명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이여, 미국이 다시 한번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특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태아들의 생명을 방어해줄 수 있는 미국을 다시 세워보도록 하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pspc0316@gmail.com

Q: 교회의 청년으로 저의 비전은 의사가 되어 의료선교사로 병자를 고치며 복음전하기를 원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공부 너무 힘이 들어 솔직히 다른 과로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샌디에고대학의 Kwon 형제

A: 세상에서 전문직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느 것 하나 공부과정이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제가 의사가 되는 공부 어려울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선교사로서의 목표와 열정이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들과 산들을 극복하여 뚫고 나가는 Breakthrough(돌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o pain, no gain이란 말처럼 고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을 정복하라!

Climb every mountain...Breakthrough

줄리 앤드류스가 주연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과거에 감동 가운데 본적이 있는데 수녀가 되려는 견습생인 마리아가 되려던 인 폰트랩 대령의 집에 잠시 가정교사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7명이나 되는데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가르칩니다. 아이들도 마리아를 좋아하고 잘 따릅니다. 폰트랩 대령은 현재 부인이 죽고 홀아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집에 가정교사로 일하다 결국은 마음으로 폰트랩 대령을 연모하게 됩니다. 더이상 사랑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는 도망치다 시피해서 수녀원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의 갈등을 수녀원 원장에게 찾아가서 고백합니다. 그때 수녀원 원장은 마리아에게 충고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수녀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신앙의 길은 아니다. 너는 너의 꿈을 발견할 때까지 Climb every mountain search high and low 모든 산을 올라가야 한다’는 마리아는 여기서 용기를 얻고 다시 폰트랩 대령의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의 부인이 되고 일곱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Climb every mountain이란 노래는 오늘날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제는 신자는 장애물과 같은 산이 있을 때 두려워 도망칠지거나 포기하는 자(Quitter)가 되지 말고 산을 올라가 정복하는 클라이머(climber)가 되어야 합니다. 산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Breakthrough, 믿음으로 그 산을 정복하고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소명을 받았을 때 자신의 무능과 무력함을 핑계로 소명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산들을 돌파하였습니다. Climb every mountain 산을 올라가 정복하십시오.

의사공부 과정이 형제 뿐 아니라 다 힘든 과정입니다. 가치 있는 일은 그 과정을 이루는 것이 더욱 힘이 듭니다.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파해나가야 합니다. 생명을 다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5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5.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5)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1 (Mon.)-13 (Wed.), 2015 (New York); May 15 (Fri.)-18 (Mon.), 2015 (Brazil Iguazu)
- 2) Place: New York; Adria Hotel & Conference Center 221-17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 Brazil Iguazu; Inquire with the Clerk of the Examination Committee :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Genesis 6:1-4
- (2) NT Exegesis Text - Acts 9:10-19
- (3) Thesis Topic - Discuss the necessity of denominations from a Reformed perspective.
- (4) Sermon Text - Isaiah 40:26-31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5.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5.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the candidate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9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9-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appropriate examination dates (New York: May 11-13, 2015 or Brazil: May 15-18, 2015) through Rev. Young Kim (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Young Kee Kim / Address: 10378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Cell : 443-520-5242 E-mail : youngkey48@g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Kil Ho Lee (718)309-3376 (kilhlee2003@yahoo.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oung Kee Kim (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총회장: 정관일목사

서기: 최동진목사

고시부 부장: 이길호목사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두블라(DUBLA)



두블라 종족 사람들은 인도 서부의 중앙 해안을 따라 살고 있으며 주로 구자라트 주, 마하라슈트라 주, 카르나타카 주와 라자스탄 주에 거주한다. 그들은 브릴 계통의 언어인 두블라어를 사용하며 인도-아리아어파에 속한다. 두블라족은 12개의 하위 종족으로 나뉘며 이중 탈팔리아스족이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

오래 전 구자라트 주의 문화적 번성기에 주변 지방 사람들이 이주해왔다. 구자라트는 마라타족의 표적이 돼 여러 해 동안 이 지역을 침략했다. 마침내 무슬림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수라트 동부에 축성을 쌓았다. 두블라인들은 무슬림들의 압력 때문에 더 남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1817년경 영국인들이 권력을 잡고 마라타인들이 남겨놓은 것을 고치려고 시도했다. 그때 농지는 정착민들에게 분산되었었다. 라즈푸트의 오랜 압제 기간과 다른 무법자들로 인해 두블라인들은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됐다.

일단 노예제는 폐지됐고 땅을 소유하지 않은 두블라인 농부들의 수는 늘어갔다. 노예 노동력의 상실로 지주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노예의 구속으로부터 풀려난 노동자의 자유를 얻게 된 이후, 정부는 두블라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돕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늘날 두블라인들은 매우 안고

하고 다루기 힘든 종족이다. 아마도 오랫동안 열등한 노예대접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현재 소작인, 하인, 임시 자유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하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돌이 노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일하기 위해 가족을 이끌고 봄베이 근처 벽돌공장 등에서 1년 중 일곱 달을 보낸다. 두블라인의 대부분이 아직 그들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농부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로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농업 생산물의 판매와 소비재 구입을 소매상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두블라족의 마을은 다른 브릴족의 마을 근처에 작은 강변을 따라 위치한다. 두블라인들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속하며, 전형적으로 방 하나와 진흙벽돌로 된 굉장히 낮은 초가집을 생활한다. 정부의 지원으로 일부 사람

들은 기와지붕을 가질 수 있었으며, 좀 부유한 사람들은 나무나 벽돌로 된 집에서 살기도 한다. 그들의 오두막이 차례로 줄을 맞춰 지어져 있지는 않지만 함께 모여 있다. 겨울의 추위와 열대성 강우로부터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두막에 거주하는 평균 가족수는 증가했다. 그들의 집을 삼켜버린 홍수 때문에 그들은 몇 해 동안 이웃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이 마을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이 없다.

두블라인들은 운순하면서도 다루기 힘든 안고한 종족이며, 사람들은 힘든 생활에 지친데다 또한 술에 빠져있다. 어떤 사람들은 적절한 교육이 그들의 뒤떨어진 마을 생활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학교 출석률은 여전히 낮으며, 문맹률은 90%에 달한다.

신앙
사실상 두블라인 모두가 힌두교도다. 그들은 영적인 안내를 받기 위해 바가트(bhagat, 사제이자 치료사)에 기댄다. 그는 신과 교접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사람"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는 친구이자, 철학자이며, 안내자이고, 치료자로서 여겨지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1개의 선교단체가 두블라 안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기독교 자료들은 절실히 필요하다. 성경은 아직 두블라어로 번역되지 않은 상태다. 이 귀중한 민족 가운데 사역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교사와 선교사, 인도적인 조력자들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아메리칸 스나이퍼 "카일은 선한 기독교인"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실제 주인공 크리스 카일의 미망인 타야(40)가 남편에 대한 일부 비평가들의 비판에 "남편은 큰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현재 미국 박스오피스 기록을 세우고 있다. 개봉 첫 주말에만 1억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아카데미 상 후보에도 올랐다.

SNS에서는 이 영화를 놓고 전쟁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가 지난 주말 '저격수는 겁쟁이'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또다른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크리스 카일의 미망인 타야는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면서 영화와 남편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타야는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은 전쟁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전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정의에 대한 전쟁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카일은 미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격수로 평가받고 있다. 1999년 육군에 입대했다. 2009년까지 해군 특수부대로 근무했다. 이라크 전쟁에 참전, 공석 160명, 비공석 255명을 저격했다. 전역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재할 훈련병들을 도왔다. 2012년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출판했다. 그러나 2013년 텍사스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군인을 돕다가 살해당했다.

카일은 사망하기 전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필름이 그의 책을 영화로 만들기로 했던 2012년 카일은 전쟁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책에 "전쟁은 지옥이다. 할리우드는 전쟁을 환상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좋아 보이게 한다"고 기술했다.

또 이라크 전쟁에서의 활동이 '심판의 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밝히기도 했다. "내가 죽인 모든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 설명해야 할 것들이 많다. 내 임무는 적을 저격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해병과 병사를 구할 수 없었다는 점이 후회스럽다. 나는 낭만적이지도 않고 전쟁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은 특수부대에 왔을 때다. 그러나 내 일에 대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카일은 텍사스 주 오데사에서 자랐다. 집사인 아버지와 주일학교 교사인 어머니 밑에서 기독교인으로 성장했다.

오바마, 이란 구금 아베디니 목사 아내 면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이란에 수감 중인 미국인 사제 아베디니 목사의 가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이다주 호 보이시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아베디니 목사의 아내 나그메 아베디니와 자녀를 만났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면담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면담은 아베디니 목사의 아내인 나그메 아베디니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아베디니 목사는 무슬림으로 태어나 이란에서 성장기를 보냈으나 20세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회자가 됐다. 기독교 구호 사역을 위해서 자주 이란을 방문했다. 2012년 현지에서 인도주의적 고아 사역을 하다가 체포돼 국가 안정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2013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내 나그메 아베디니는 "대통령께서 직접 남편의 복역으로 인한 내 고통을 봐 주기를, 3년 가까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못한 아이들을 봐 주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란 정부에 아베디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 2013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

미라 가면서 AD90년 마가복음 사본 발견?

주후 9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 사본이 발견됐다. 이집트 미라 가면을 손질하면서 찾았다.

크레이그 에반스 연구팀이 미라 가면에서 마가복음 파피루스를 발견했다는 주장을 했다. 워싱턴포스트와 US뉴스&월드리포트 등 외신이 21일 보도했다.

크레이그 에반스는 캐나다 노바 스코샤 주에 있는 아카디아신학대학 교수로 사본학 분야의 권위자다. 에반스 교수는 발견된 파피루스의 연대를 주후 9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의 주장이 맞다면 가장 오래된 신약성경·마가복음 사본이 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3세기로 추정되는 체스터 베티 파피루스(P45)다. 학계에서는 마가복음이 주후 60-70년에 처음 기록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은 에반스 교수의 발표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기독교인 공격" 니제르 교회 81곳 불타

니제르의 임준표 선교사가 수도 니아메에 건립한 생수교회 건물이 지난 17일 성난 시위대에 의해 불타 내부 기물 등이 모두 파손됐다. 임준표(59) 김정연(57) 선교사는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성난 시위대가 교회와 기독교학교를 공격했다는 긴급 제보를 받았다. 그들은 수업을 중단했고 700여명의 학생을 대피시켰다. 하지만 주위에 시커먼 연기가 솟아올랐고 시위대의 아우성 소리가 들렸다. 교사들과 함께 몸만 빠져나온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 하다가 인근

부족의 초가집으로 숨었다. 그리고 5시간, 시위대는 학교 건물과 교회 등을 불태웠다. 임 선교사는 움막에서 전화를 받았다. 불타는 교회와 학교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임 선교사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

지난 17일 니제르에서 일어난 반(反) 샤를리 에브도 만평 반대 폭동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임 선교사는 22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담당하게 전했다.

그는 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소속 선교사로 1988년부터 교회와 학교 사역을 펼쳐왔다. 이번 폭동으로 운영 중인 생수중·고등학교의 행정 건물 1개가 전소됐고 18개 교실의 기물이 파괴됐다. 또 교회당 2개와 선교부 사무실, 선교센터도 전소됐다. 생수중·고등학교는 니제르의 명문 사학으로 장관과 정부 고위직 공무원 자녀들이 주된 학생이다.

임 선교사는 "수도 니아메에 있는 현지 교회의 90%가 불타는 정도로 피해를 컸다"며 "시위대는 사전에 페타이어와 휘발유를 준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시위대들은 그룹으로 나눠 각 교회의 십자가와 강대상, 성경, 찬송, 성가대복 등 기물을 수거해 교회당 앞에 모아놓았고 그런 다음 교회 건물과 함께 불을 질렀다.

니제르기독교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개신교회 63개, 가톨릭교회 18개 등 총 81개가 불에 탔다. 한국 선교사들의 경우 임 선교사 이외에도 P 선교사의 교회와 전도사 사택이 피해를 입었다. '컴 파운드'라고 부르는 구역 안에서 활동해온 GMS와 하나님의성회, 침례교신교부 등은 주 타깃이었다.

임 선교사는 "현지인들 사이에 '기독교인을 공격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돌고 있어 외출을 삼가하고 있다"며 "선교사들은 니제르 교회와 함께 끝까지 고통을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수중·고등학교는 22일 전기와 수도 시설이 복구되면서 수업을 재개했다.

한편 GMS는 피해를 당한 임 선교사의 학교와 교회 복구를 위해 총회 차원에서 모금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5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5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릇 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5년 5월 11일(월)~13일(수) 뉴욕장소, 5월 15(금)~18(월) 브라질장소
2) 고시 장소: New York, Adria Hotel & Conference Center, 221-17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Brazil Iguaçu (고시부서기에게 문의바람)
-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한문 (이상 4과목)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창세기 6:1-4
(2) 신약 주해 - 사도행전 9:10-19
(3) 논문 제목 - 개혁주의입장에서교단외교회요성에대하여논하시오
(4) 설교 원문 - 이사야 40:26-31
①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② 필기고사 당일 본인 선택한 분문을 중심으로 설교설기고사를 치를 것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이내)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5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이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00
-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5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인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39회 총회기간(5월 19일-22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고시부서기(김영기목사)에게서7/12(11일-13일 2015년뉴욕장소, 15-18일 2015년브라질장소) 종사용할소속을예약할 것.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Rev. Young Kee Kim) / Email: youngkey48@gmail.com
10378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Cell: (443)520-5242
-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이길호목사(718)309-3376, kilhee2003@yahoo.com
2)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3) 고시부 회계: 허윤준목사(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총회장: 정관일목사 서기: 최동진목사 고시부 부장: 이길호목사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4)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내용들이었다. 그들이 성경에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에 자신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듯 믿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욱 힘찬 사역을 전개하였다.

1. 초대교회 - 사도와 성경 (2)

'백문(百聞)이 불어일견(不如一見)이다. 과연 무엇이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되는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앙이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한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 이상한 일이다.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신다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의심의 그림자와 싸우며 신앙을 지키도록 하신다. 한편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신앙은 기록된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 구약-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성경
예수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한 분이셨다. 그는 구약의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다. 예수는 하나님께

전까지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구약의 전통의 굴레 속에서 생활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을 읽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의 행적과 가르침과 함께 점점 퍼져나갔다. 제자들은 물론 직접 그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가족과 친척 또는 친구와 이웃 중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나눈 예수에 관한 자

여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 것을 당부하셨다. 그는 승천하기 바로 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향후 초대교회는 예수의 유언적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였다. 특히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 성령의 강력한 역

는 관점에서 가르치고 배웠다.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요약되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 자신들이 전달하는 복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적어도 그들에게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확인하는 것이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사도들은 한 가지 실제적인 문제와 부딪치게 되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교회가 확장되는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사도의 증거를 근거로 하는 '구전된 복음'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 하나는 사도들의 사역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로 인하여 복음 전파 사역 자체가 제한을 받기 시작하였다. 직접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교회가 확장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수에 대한 입소문이 퍼져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이해하는 복음'이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그뿐 아니라, 영지주의 등 그 당시 유행하던 사상에 젖어 있거나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려는 자들은 '진리로부터 이탈된 복음'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10면으로 계속)

"본 것"에 근거한 사도들의 신앙으로 초대교회 복음 전파 '내가 이해하는 복음' 왜곡에 기록된 성경의 중요성 인식

1) 교회역사를 보면...

서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드러난 구원을 뜻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렀다. 또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였다. 때로는 직접 성경구절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은 물론 조창기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회심하기

신들의 놀라운 경험은 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성경의 내용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는 유대인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주신 지상명령을 기억한다. 그는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을 복음전파의 대상으로 하

사를 체험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전념하며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 초대교회-사도들의 생생한 복음에 기초하여 초대교회는 어떤 성경을 사용하였을까? 초기에 그들은 주로 구약 성경을 사용하였다.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예수의 삶과 사역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앙은 "분명히 보이는 것"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가르쳤지만, 자신들은 직접 예수로부터 들은 내용을 간직하고 있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자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2)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모세가 모든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다고 끝까지 고집한 이유는?

모세는 바로에게 광야로 사울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로는 광야까지 가지 말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 그러자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바로는 그러면 멀리서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모세는 적어도 사울 길

은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바로는 그러면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라고 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바로는 사람만 나가고 양과 소는 제물로 드릴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두고 가라고 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짐승들을 데

리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모세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양과 소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랴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은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 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러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출10:24-26). 결국 두 사람 사이의 협상은 결렬되고 만다. 왜 바로와 모세는 마지막 문제에 있어서 피차 한 걸음씩 물러나서 타협을 하지 않고 회담을 결렬로 몰고 갔는가?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물론 소와 양까지 다 데리고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가족들을 포기하고 사람들만이라도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바로가 다른 것은 다 허락하면서도 짐승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때문이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짐승

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해야 했다. 똑같은 이유에서 모세도 끝까지 소와 양을 다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고집한 것이다. 수많은 가족들을 놓고 나가는 것이 가까워서 끝까지 바로에게 그것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한 것일까? 아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나 있는 해변길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일주일치 양식을 준비해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기로 결정하셨다.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계곡을 포기하고 사람들만이라도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양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준다. 광야에는 물이 없다. 그러나 양이 매일 신선한 우유를 제공해준다. 양의 털

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가족으로는 집(천막)을 만든다. 양이 죽게 되면 고기를 먹는다. 배설물은 말러서 불을 피울 때 사용한다. 양 몇 마리만 있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도 배두인들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무 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 하나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양이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짐승들을 다 데리고 나오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만일 양이나 짐승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이집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메일: jinilee1004@yahoo.com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 위치한 타코마삼일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본 교회는 설립 23년 된 교회로 자체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복음언약교회(The Evangelical Covenant Church) 교단에 가입한 교회입니다.

- 1) 자격: 1. 정규 신학대학 Th. M 혹은 M. Div 학위 이상 소지한 분
2. 목사안수후 5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3. 미국 시민권/영주권 소지자
4. 2중언어 (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5. 연령 40대에서 50대
- 2) 제출서류: 1. 이력서
2. 최종학력 증명서 와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소개서 (가족소개 및 사진포함)
4. 최근 음성설교 2편 (해당 CD/DVD)
5. 목회비전 및 신앙고백서
- 3) 제출처: 1. 우편: 삼일교회 청빙위원회
Tacoma Trinity Church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2. E-Mail: tyyounglee@gmail.com
- 4) 제출마감: 2015년 2월28일 까지
- 5) 기타사항: 접수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임된분에만해서만 개별통지 드립니다.
전화문의: 이영환 청빙위원장 (360-265-4961)

타코마 삼일교회 TACOMA TRINITY CHURCH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영어: _____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창조과학 칼럼 (220)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29) 가시와 잡초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행복했던 그 곳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인류와 인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는 지금도 여전히 인류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대변되는 죽음과 고통과 재난과 가난과 전쟁 등 인류가 원치 않는 것들의 근원적 원인이다.

창조된 세상에는 가시가 없었다.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지만 신발도 신지 않았을 것이다. 발을 아프게 할 가시도 없었다. 장미는 아름답고 향기를 내지만 일단 그 가시에 찔리면 그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감상할 여유가 없다. 찔리는 순간, 죽을 것처럼 아프다. 크고 많은 가시가 돌아 있는 뱀자나무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이 밖에도 가시를 가진 식물들이 의외로 많다. 대추나무, 밤나무, 레몬 나무,

뿌리 뿐 아니라 더 깊이 뿌리를 내려버린다. 이 엉겅퀴 뿐 아니라 창조주께서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많은 식물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잡초나 독초로 변하고 말았다. 잡초들 중에는 유별나게 광합성

겨 버의 C4 시스템이 사용될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저주 가운데서도 그치지 않으신다. 엉겅퀴 속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효를 남겨 주셨

건 등을 사실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이 물질만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의 진화론처럼 수백여 년 동안 빅뱅의 결과로 혹은 수십억 년 동안 물질이 스스로 진화된 결과로 현재가 형성되었다고 믿는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확률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과정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과정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었다고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지만 그들은 이 과정에 창조자의 손길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정하되 기적이 동반된 성경의 역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창조이론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른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창조와 같은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희한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용납되지 않고, 성경의 기적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도 않다.

식물의 가시는 창조 후 타락과 심판 때문에 드러난 것으로 추정 '유신론적 진화론' 은 자기만족 위한 이론...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업나무, 아카시아 나무, 호랑가시나무, 각종 선인장들, 산딸기, 엉겅퀴, 그리고 담을 타고 올라가는 이름 모를 예쁜 식물에도 가시가 숨겨져 있다.

가시를 가진 식물들은 언제 창조되었을까? 창조과학자들은 가시를 가진 식물들이 아담의 저주사건 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창조된 식물들에서 타락과 심판의 영향으로 드러났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이미 마쳤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이다(창1:31, 2:1-3). 그러나 창조주는 각 생물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유전정보)을 넣어두셨다. 그 중에 가시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들어있었던 것이다. 일반 과학자들도 선인장 가시를 건조한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된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라빛 꽃이 참 예쁜 엉겅퀴는 이름도 이상아랫한 식물이다. 피를 엉기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할 아담에게 이 엉겅퀴는 뽑아 없애야 할 잡초요 고통이었다. 이 엉겅퀴 씨는 민들레처럼 한 개의 꽃에서 수많은 씨가 바람에 날려 퍼져나가니 농부에게는 괴로운 것이다. 한 해만 뽑지 않고 두면 이듬해에 더 많은 씨를 흘



을 잘하는 것들이 있다. 과학자들은 식물들이 두 가지(C3와 C4) 방법으로 광합성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 방법 중 고온에서는 C4 방법이 효율이 더 높다. 그런데 열대 지역에서 C4 광합성을 하는 잡초들이 C3 방법으로 광합성을 하는 곡물들을 이기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벼와 같이 사람에게 유익한 C3 식물에서도 C4 광합성에 필요한 유전자가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담의 타락과 저주 사건으로 어떤 유전자들에 돌연변이가 생

고, 사람의 주식인 옥수수를 비롯하여 사탕수수, 조 등이 아직도 광합성을 잘하는 C4 식물로 남아 있게 하셨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창조자 본인이 인류의 죄 값을 다 가져가심으로 인류에게 새 생명의 가능성을 남겨두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그런데 크리스천들 중에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실, 그들의 범죄 사실과 하나님의 저주사

그냥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설명일 뿐이다. 이런 믿음은 인류의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구원의 필요성도 대다수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신학이기에 거기에 맞추기 위함일 뿐 절실한 것이 아니다.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체내에 가서 태어났다는 것도, 부활의 기적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천국이 갈 수 있을까?

2015년 새해에도 우리는 가시를 피하고 잡초들을 제거하면서 힘든 한 해를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건 안 되었건 인류는 이런 환경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필자도 혀에 암이 발생하여 지난 몇 달 동안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암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가시와 잡초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다.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도구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심판 중에서도 언제나 잊지 않고 예비해두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며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메일: mailforwsc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와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출18:11).

하나님의 산 진진 곳에 이드로가 딸과 손자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은혜의 일을 듣고서 크게 기뻐하며 경배 드립니다. 모세가 비록 광야에서 무명인의 객으로 만난 저를 귀히 여겨 주는 평생의 배려자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지경에 떨어져도 그 자리에서 살 길을 내시는 자상한 하나님입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십니다. 문이 닫힌다고 쓴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지요. 다만 여시는 대로 자세를 조절하여 주님의 인도를 부지런히 따름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기대 밖으로 힘겨워진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연민에 빠지거나 우울증으로 자신을 내모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최대의 불순종의 죄입니다. 환경을 하나님의 주권의 사랑의 안목으로 보는 시야로 바꿔야 합니다.

정작 생명을 걸고 돌보는 이스라엘들은 모세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도우미가 되었던 이들이 영동하게 평생 은혜를 베풀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저들이 변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니 기가 막힙니다. 죽을 듯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일으키시어 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십니다. 심지어 그 많은 이들을 다스리느라 감당 못하는 것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지혜를 베풀어 도와주는 지혜로운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때에 지혜가 있는 자를 붙여주셔서 정확히 도와줍니다.

환경을 쳐다보면 영락없이 쓴 마음이 덮칩니다. 심령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을 놓아버립니다. 스스로 이르기엔 소망이 없다고 절망스러워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속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 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여호와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을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렘3:19-24).

은혜를 듬뿍 입은 이스라엘은 원망을 일삼고 곁에서 지켜보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니... 때로는 받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 은혜를 당연시하는 이스라엘보다 차라리 은혜를 모르던 이방인이 은혜를 입으면 순진하게 하나님께 순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며 깊이 회개합니다. 나의 기업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무궁한 자비하심으로 주께서 종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기업을 믿게 하소서! 매일 매일 성실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는 고통이 나와 주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벽이 아니고 가까이 붙여주는 पुल이 되게 하소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기적이 나를 따르는 분복을 주소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는 지혜의 은사를 더하시고 담대히 이를 믿고 나아가도록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뒷받침하소서! 주님, 제게 임한 모든 것을 은혜로 보아는 감사의 눈을 크고 깊게 밝혀 주소서!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미주 갈멜산기도원 신년 축복 기도성회

날짜 2015년 1월 22일(목) ~ 2월 5일(목)
※주일 성회는 없습니다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 gstcenter98@gmail.com

2015년 조성근 목사 부흥성회 일정

1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2월	1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3월	2~4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4월	1~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월	4~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일 총신대학교 심령수련회		6~8일 용인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9~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9~11일 (합동)태백시찰 연합성회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미중진목사)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일 칼빈대학, 대학원 채플		26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11~13일 (합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22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23~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7~29일 화명교회(이재욱목사)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23~25일 동촌교회(윤석호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7일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22~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미국과 열방의 회복위한 '한마음'

제 8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GIM/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본부(대표: 정윤명 목사, 웹넛크릭지 아이엘교회 담임)가 주최한 제 8회 올네이션스연합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지난 25일 오후 6시, 30여 교회 여러 민족 목회자와 성도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가주 오렌트 지역 샌 렌드루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교회인 Life Change Baptist church(담임: Johannes Sudarma)에서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소원하며 성령의 열매를 열었다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 인도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라티노, 루마니아, 아프리카, 유럽, 일본, 중국, 필리핀, 미얀마 등 30여 민족 목회자와 민족 교회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이스라엘,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의 기도 내용과 각국이 당면한 심각한 기도제목(Prayer Issue) 요청과 회복을 위한 영상발표(presentation)가 있었다.

로 연합기도를 했다.

특히 이날 미국의 교회, 학교, 사회, 정부, 군인, 젊은 세대를 향한 영적각성, 미국 캠퍼스 복음화 촉구와 함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보호를 촉구하며, 특히 동성애와 낙태 등의 창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미국을 위해 GIM 위원들이 새로 개정된 미국회복기도문을 Steve Willhite 목사(콩코드 Parkhaven church 담임)가 낭독했다.

대회장인 정윤명 목사는 5월에

열릴 제 8회 이스트베이 지역의 글로벌 다문화 콘서트와 9월에 있을 제 11회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대회(Global Int'l Missions Rally)에 미국내 여러 민족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재부흥과 함께 열방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함께 결속해 협력할 것을 전하면서 미국 내의 많은 한인 커뮤니티도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제공: GIM)



오레곤, 밴쿠버 한인교회 연합회 2015년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업계획 예산안 통과, 신 임원선출 오레곤밴쿠버 한인교회연합회 2015년 임시총회

2015년 오레곤밴쿠버 한인교회 연합회(회장 오광석 목사) 임시총회가 19일 오후 7시 벨렐 장로교회(

담임 이돈하 목사)에서 소속 24교회 중 14교회 총대가 참여한 가운데 19일 오후 7시 벨렐 장로교회(

1부 예배는 부회장 강승수 목사의 사회로 기도는 고백서 장로(영신도 부회장), 설교는 오광석 목사가 "모이기를 힘쓰자!"(히10: 19-25)란 제목으로 전했다.

오 목사는 "최근 지역 교인들이나 교회들의 개교회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대를 경고한다"며 "교회가 연합해 모든 교회가 잘되고 함께 성장하는 모양으로 바꾸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임시총회는 회장 오광석 목사의 사회로 교연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으며 2015년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한편 직전회장 안형일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이윤균 목사가 제출한 신임 회원교회 가입요청을 승인, 연합회 총 회원교회는 25개 교회가 됐다.

(기사제공: 오레곤밴쿠버 한인교회연합회)

풀러한인총동문화 주최 오버나이트패밀리 수양회

Fuller한인총동문화(회장 박진구 목사, 전주 안디옥교회)가 주최하고 Fuller한인M.Div.동문화(회장 신동희 목사, 울타리교회 담임)가 주관한 "2015 Fuller한인동문화 Overnight Family Retreat"이 지난 18일과 19일 Miracle Springs Resort and Spa에서 총인원 67명(자녀 27명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시간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고승희 목사(아름다



풀러 한인총동문화 주최 오버나이트 패밀리 수양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운교회, Fuller한인총동문화 부회장의 "목회자의 건강한 영성관리" 세미나가 있는 후 가족들과의 휴식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풀러한인총동문화)



크리스천 법률 칼럼



지니 정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그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 불편을 겪었던 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네바다, 유타 등 12개 주로 확장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한 AB 60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기와 실기시험을 치르셔야 하며, 본인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와 캘리포니아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신원 확인 증명서류: △2000년 10월 이후 발행된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증 또는 캘리포니아 주 ID카드, 또는 유효한 외국여권 △2008년 이후 발급된 한국여권 △타: 학교서류, 타주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 출신국 영사관에서 발급한 ID카드, 소득세 보고서, 법정서류, 미국내 기관에서 발행된 포도 ID카드, 미국내 결혼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급서류 등등

-캘리포니아주 현재 거주 증명서류: 본인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본인 이름이 없고 가족이나 배우자 이름이 명시된 경우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학교 서류, 메디컬 서류, 은행 서류... △유틸리티 내역서: 휴대폰, 가스, 전기, 물, 크

레딧카드... △렌트 계약서, 보험증서, 자동차 등록서류, 세금 보고서 등등...

AB 60의 시행으로 서류미비자들의 이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범죄기록이나 추방명령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해당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해서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충분한 서류와 규정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접수하셔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213)427-9750



미주 한인 이민 112주년을 기념하는 2015년 미주한인의 날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한인 날 선포식이 20일 오후 1시 LA 다운타운 카운티 청사에서 열렸다

미주한인이민 112주년...오바마 축사대독 LA슈퍼바이저위원회, 2015년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

미주한인 이민 112주년을 기념하는 '2015년 미주한인의 날' LA카운

티 슈퍼바이저위원회의 한인의 날 선포식이 20일 오후 1시 LA 다운타

운 카운티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슈퍼바이저위원회는 미주 한인재단USA 임원진과 함께 한인 이민사회의 역사와 발전을 기렸다. 이번 선포식에는 한국의 전 농림부장관이자 5선 의원 출신의 김영진 장로가 참석해 연설했으며 백악관 차관보 출신의 진교룡 박사가 통역했다.

또한 미주한인재단 박상원 명예 전국총회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으며 LA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가 미주한인의 날을 선포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미연방의회는 2005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제정한 이래, 매년 미주한인의 날을 선포하는 행사를 가져왔다.

(박준호 기자)

<1면에서 계속>

셋째로 온유하게 말한다. 온유한 말이란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은혜에 폭 잠긴 말을 의미한다. 온유한 말은 마치 목자가 양 떼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막대기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치는 것과 비슷하다. 온유한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막을 껴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렇게 하므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나 마음을 사로잡는 기쁨을 마음껏 털어놓게 해준다.

따라서 격려란,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 합류하여 그가 장애물과 피로에 지칠 때에도 그 길을 계속하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다. 우리는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

하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격려는 격려하는 사람의 동기가 사랑에 근거해야 하고, 상대의 필요를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격려는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다. 경고, 꾸짖음, 교정, 가르침, 설명, 공감, 반성 또는 자신을 노출하는 말일 수도 있다. 말하는 동기가 사랑이고 방향이 상대방의 두려움을 향할 때, 비로소 격려의 말이 될 것이다.

또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순전한 관심이 드러나도록 말해야 한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으며,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소망을 심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

의 영향력이다. 그 소망이 사람들을 움직여 피곤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과 더 많은 선행에 힘쓰도록 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견디게 해준다. 격려는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격려는 사랑에 대한 민감함이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꾸준히 가꾸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정정] 본지 제 1518호 9면에 게재된 목회서신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는 여승훈 목사의 글이었음을 정정합니다. 필자 두 분 모두에게 사과드리며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인/터/뷰 한국의 프로젝트 인디밴드 '블루&블루' 리더 황종률 집사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향해 전진한다!

한국의 프로젝트 인디밴드인 '블루&블루'가 지난 12월 미주순회콘서트를 가졌다. 구암 20일 LA를 방문한 블루&블루의 리더 황종률 집사를 만났다.

블루&블루(Blue&Blue)의 의미는 '하늘과 바다'라고 말하는 황종률 집사는 "하늘과 바다는 각각 푸른색을 갖고 있지만 다른 푸른색입니다. 저의 20대 시절은 참 고민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민이 생길 때 훌쩍 바다를 찾았어요. 특히 속초에 많이 갔었는데, 바다에서 보여지는 하늘과 바다를 보고 힐링이 됐습니다. 어떤 자유라 할까요?"

황 집사는 음악을 시작하면서 바다에서 느꼈던 자유를 그의 음악에 투영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며, 그가 봤던 하늘과 바다 즉 블루&블루에 담긴 자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메시지가 근본적

으로 들어있다고 전했다. 이런 자유함이 그의 음악활동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된다. 1994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은상을 수상한 뮤지션 황종률 집사는 96년부터 원맨 프로젝트그룹 블루&블루를 이끌었다. 싱어송

황성용, 피아노 강현규로 구성된 공연과 음반작업을 하고 있다. 블루&블루의 곡 중에는 "지나가리라", "안녕" 등 사회성 있는 곡들이 있다. 황 집사는 대중음악인으로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면서 '그저 덧없는 곡들을 만들어

목곡들은 한국사회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자살'에 관한 메시지와 삶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여러 캠페인 무대에서 공연을 해왔다. 우연찮게 '미국내 한인가정의 높은 자살률'



한국 프로젝트 인디밴드 블루&블루의 공연모습

크리스천들 모임 '블루&블루' 의미는 '하늘과 바다' 미주 한인가정 높은 자살률 기사보고 LA공연 계획

라이터로서 뿐만 아니라 사운드엔지니어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는 감미로운 보사노바 사운드를 국내 음악 팬들에게 꾸준히 들려주었다. 현재 리더이자 기타와 보컬을 담당하는 황 집사를 비롯 보컬 임진호, 베이스 강덕영, 플루트 고유진, 퍼커션

부르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브리질의 싱어송라이터 주앙보스코의 음악들이 브라질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서 나 역시 이런 곡들을 만들어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블루&블루 3집 "지나가리라" 수

기사를 본 후 블루&블루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을 드리면 어떻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결국 실천에 옮겨 미주공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크리스천으로서 대중음악 활동하면서 갖게 되는 애로사항에 대

한 질문에 대해서는 딱히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주에서 활동하시는 크리스천 음악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받는 제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기준이랄까 그런 것들이 흔들려버렸을 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악인으로서 진실된 음악을 추구한다면 뮤지션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오지 않을 테니까요."

서울 신월동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를 어머니로 두

고 있는 황종률 집사는 대중음악인으로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주일 성수는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전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음악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하는 본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라나는 뮤지션들과 음악인을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실된 음악을 하도록 추구해 나간다면 대중들은 그 마음을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노래하고 연주할 것을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의 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9회 총동문(회장 허윤준 목사)의 밤이 2월 9일(월) 저녁 7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637-1470, (917)733-7387, (718)578-0158

뉴욕교협 이전 감사예배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택 목사) 이전 봉헌 감사예배가 3월 2일(월) 오전 10시30분 새 건물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1414(교협사무실)

TCE 교사세미나

뉴욕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최영대 목사)가 주최하는 TCE 교사세미나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린다.

▲문의: (312)286-4646 bigbell59@gmail.com

에스라성경연구원 헬러어 강좌개설

에스라 성경연구원(원장 김재호 목사)이 주최하는 헬러어 강좌가 2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10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열린다.

▲문의: (646)270-5987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생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학생을 모집한다. 학위과정은 ESL, 대학부(B.R.T, B.R.M, B.R.B.A), 대학원(M.C.C, M.C.E, M.C.M, M.M.L, M.Div), 박사원(D.Min, D.C.M, D.C.D)이며 온캠퍼스(I-20발행)와 온라인, 블렌디드 강의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문의: (636)327-4645, (571)730-4750

동부 '눈폭풍 경보' 발령 교계행사 연기

뉴욕장로연신년하례회, 여성목회자협세미나 등

26일과 27일 미 북동부 지역에 내린 '눈폭풍 경보'(blizzard warning)로 인해 뉴욕지역의 교계 행사들이 잇달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뉴욕장로연신년하례회는 26일 저녁 금강산 식당에서 2015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눈폭풍 경보가 발령된 26일 오전, 행사 연기를 공지했다.

변경된 일정은 2주 연기된 2월 9일(월) 오후6시30분 금강산 식당이다.

또 필라델피아대학교(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PGM 중보기도회도 취소됐다.

PGM선교회와 지역교회,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전희수 목사)도 27일 오전부터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예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 주 연기로 2월 3일(화) 오전10시 뉴욕초대교회에서 진행됐다.



뉴욕원로목사회 월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에 불어닥친 눈폭풍으로 시민들이 발걸음 재촉하고 있다

동양제일교회 초청 뉴욕원로목사회 1월 월례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 1월 월례회가 동양제일교회(담임 빈상석 목사) 초청으로 지난 20일 동 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부회장 홍상철 목사의 사회로 김정식 목사의 기도, 빈상석 목사의 말씀선교에 이어 임지웅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설교에 나선 빈상석 목사는 열왕기하 15:1-7절을 본문으로 "죽는 날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목회 현장에서 떠났지만 마지막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박수를 받는 은퇴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를 소개하면서 존경도 칭찬도 못 받고 온갖 모욕을 다 당했지만 마지막 결론에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했다.

뉴욕원로목사회 2월 월례예배 18일(수) 아름다운교회(황인철 목사)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볼링대회 게임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쳤다.

목회자 가족 건강을 위한 무료 볼링대회

뉴욕목사회-교회일보 공동주최

'목회자 가족 건강을 위한 무료 볼링대회'가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와이트론 볼링장에서 열렸다. 교회일보(대표 우병만 목사)와 처음으로 볼링대회를 공동주최한 뉴욕목사회 회장 이만호 목사는 "목회자들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목회자들 간에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에 앞서 안창의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만호 목사의 인사말이 있은 후 김연규 목사가 게임 안내를 했다. 총 3회에 걸쳐 게임을 진행했으며 푸짐한 선물을 함께 시상했다.

(유원정 기자)

황병호 목사 소천

황병호 목사(1922.1.7-2015-1.20)가 지난 20일 오후 1시52분 9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 황병호 목사는 이복석 사모와 사이에 황영 목사(현상하 목사(퀸즈제일교회 담임), 황문영 목사 등을 비롯해 5남 2녀를 두었다.

환송예배는 이길호 목사의 집례로 지난 22일 오후 7시 뉴저지 중앙장로에서 열렸으며, 환관예배는 김남수 목사 집례로 23일 오전 11시 장지인 파인론 공영묘지에서 열렸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암 환자 위한 새해 첫 공연

비영리 문화공연단체 이노비(EnoB: Innovative Bridge, 대표: 강태욱)가 2015년 '이노비 아웃리치 콘서트(EnoB Outreach Concert)' 첫 공연을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위치한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 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가졌다.

이노비의 강태욱 대표는 "2015년은 총 공연 횟수를 40회에서 90회로 늘려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작은 공연이지만 감동과 힐링이 있는 무대로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행복나눔(Spreading Happiness)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원문의: happiness@enob.org (212)239-4438 www.enob.org (기사제공: 이노비)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총 14곡의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한 '이노비 클래식 콘서트(EnoB Classic Concert)'는 동 센터를 시작으로, 29일(목) 갈보리 호스피스(Calvary Hospice, Bronx), 2월 25일 오후 1시 컬럼비아 어린이 병원(Columbia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Manhattan)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찾아가는 공연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3일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 센터 공연을 마치고 공연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령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기록된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함께 복음 자체가 능력이란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주어야 했다. 그 결과 신앙성경이 집필되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와 후대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남긴 말과 글은 근본적으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기록된 말씀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2)성경이 보인다!-고전 15:1-11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을 담은 것일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 그들은 확신에 차서 예수를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전달하던 복음의 핵심은 '역사적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있었다. 그들은 성경의 역사와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Churches listed include New York Baptist Church,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etc.

'이 땅 고쳐주소서' ...미주교회연합

미기총, 남가주한인교계와 연합 기도성회 성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가 주최하고 자매대표 강순영 목사, OC교협(회장 김기동 목사), OC목사회(회장 객재필 목사), OC펜션도전도연합회(회장 윤우경 집사)가 공동 후원한 미주교회연합 기도성회가 '이 땅 고쳐 주소서'라는 주제로 22일부터 25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미주교회연합 기도성회 금요일 저녁 집회에서 정인수 목사가 말씀선포후 청중들과 함께 합심기도를 하고있다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한기홍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금요일 저녁집회는 본 교회 G4찬양단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영 김 가 주하원의원이 간증했다. 이어 정인수 목사(아들만연합장로교회 담임)가 '부흥의 인생, 부흥의 교회'(창 35:1-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열린 합심기도 시간에는 객재필 목사가 '학교에 대하여', 더글러스 집사(HYM대표)가 '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 담임)가 '부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 인도했으며 박희민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정인수 목사는 "80년대부터 2000년대는 이민교회의 전성기였다. 지금은 이민교회 성장이 주춤한 실정이다. 한국교회도 어렵다. 이민교회를 보면 예전 같은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이어서 열린 합심기도 시간에는 객재필 목사가 '학교에 대하여', 더글러스 집사(HYM대표)가 '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 담임)가 '부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 인도했으며 박희민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2015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금 수여식 및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 이취임식이 OC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제132차 소망교육세미나가 LA복음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서부교계 게시판

West

'2015 Fuller 목회자 세미나'

'Fuller한인총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 전주 안디옥교회)가 주최하고 'Fuller한인M.Div.동문회'(회장 신동희 목사, 율타리교회)가 주관하는 '2015 Fuller 목회자 세미나'가 2월 2일(월) 새장로교회(담임 원영호 목사 970 N. Virgil Ave., LA)에서 개최된다. '선교와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 강사는 박진구 목사이며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참가비는 20달러(1월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한 사전등록자 중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10달러).

▲문의: (323)404-3147 박세현 목사

얼바인아름다운교회 성전입당 및 설립기념 부흥회

얼바인아름다운교회(담임 이동준 목사)는 성전입당 및 설립기념 부흥회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주제로 30일(금)부터 2월 1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와 일정은 △30일 양병희 목사(서울영안교회) 오후 7시30분 △31일 최낙중 목사(서울해로교회)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2월 1일 박용순 목사(인천주안중앙교회) 오전 11시, 오후 6시.

▲문의: (949)250-1111



찬양사역자 김명식 콘서트가 이음카페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 이취임식

장학금 전달... 총 88명에게 151,313달러

2015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금 수여식 및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 이취임식이 25일 오후4시 옐렌지 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밀알수여찬양팀의 특별찬양이 있던 후 김명길 목사(미주밀알 이사장, 감사한인교회 담임)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시 37:3-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임 이종희 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밀알에서의 사역을 통해 손과 발, 그리고 온 맘을 다해 밀알선교단을 사랑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이영선 단장이 밀알선교단을 풍성하게 다스려 왔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여 희망과 빛이 되는 남가주밀알선교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 관심가지고 동역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열린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 취임식에서 이종희 목사(세계밀알연합 총재)가 격려사를, 남가주밀알선교단 신임 단장인 이종희 목사가 취임사를 했다. 이어 남가주밀알 이사장 남성수 목사가 미주밀알 총단장 이영선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함께 격려사를 했다.

김명길 목사(북가주밀알 단장)의 사회와 LA밀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임덕순 장로(남가주밀알 이사)가 기도했

으며 밀알수여찬양팀의 특별찬양이 있던 후 김명길 목사(미주밀알 이사장, 감사한인교회 담임)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시 37:3-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상황극 통해 유언서 작성 이유 설명

소망소사이어티 제132차 소망교육 세미나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최한 제132차 소망교육 세미나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12시까지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이영선 목사)에서 열렸다.

유분자 이사장은 "소망유언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유언서다. 예전에는 유언서에 법적대리인을 한 명 쓰게 했다. 하지만 대리인이 당사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두 명을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파기 프로젝트를 2008년부터 시작했다. 현재 아프리카에 240개의 우물을 썼다. 그리고 시신 기증운동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675명이 시신기증했다. UCI를 통해 실시중인 시신기증을 통해 세계 여러 곳에서 UCI에 찾아온 의학생들을 훌륭한 의학도로 후원하는 일

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철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소망소사이어티 소개 동영상, 소망중앙단과 참석자들이 함께 노래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주혜미 교수(로드랜드대학교, 소망소사이어티 사역부장)가 '치매예방과 웃음치료'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최경철 사무총장이 '소망유언서를 꼭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의했으며, 이날 참석한 자들과 함께 상황극을 통해 유언서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Story Concert With Cafe E.Um' 주제

원하트미니스트리 주최 '김명식 콘서트' 성황

찬양사역자 '김명식 콘서트'가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 주최로 22일 저녁 7시 이음카페(대표 김동철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하디"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와서 보니 이곳에 계신 분들이 격려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있었던 콘서트를 비롯해 LA지역 순회공연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오직 예수', 'What a wonderful world',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예수님은 사랑이여'를 불렀으며, '난 예수가 좋다'를 콘서트를 관람하러 온 양재혁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와 함께 불렀다.

피터박 목사는 "처음으로 카페에서 콘서트를 했다. '스토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감사하다. 앞으로 찬양콘서트를 카페에서 하게 될 텐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기독교문화를 나누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작년 4월 한국에서 벌어졌던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며 만든 '남겨진 아빠의 기도'를 불렀다.

한편 찬양사역자 김명식 씨는 지난 14일 LA에 도착 새생명비전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주님의마음교회, 테메랄라 한인교회, LA사랑의교회 등에서 찬양콘서트 및 집회 특송을 했으며, 24일 오전11시에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열린 보컬클리닉 강사로 강의했다.

이날 위대한탄생 출신 허지애 씨가 찬조 출연해 'Isn't she lovely', 'Love', '승리', '가시나무'를 부르며 콘서트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서부(CA)교회안내</h2>						
<p>남성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광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배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p> <p>담임목사: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공부(월-금): 오전 5:30 주요예배: 오후 6:30 E.M. 대배부: 오후 11:30 주일예배: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www.nachimbun.org</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 1부예배: 오전 1:30 영양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p>남가주리더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10 (Holywave-영아예배) KDC(한국어예배) 주일후예배: 오후 1:1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p>	<p>동문교회</p> <p>담임목사: 김상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동양선교교회</p> <p>담임목사: 박형은</p> <p>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도예배: 오전 9:30 3부 영양예배: 오전 11:00 4부 찬양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정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8:0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드림교회</p> <p>담임목사: 이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새벽 5:30(월-토) 6:00(토)</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2</p>	<p>미주양광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10 (청년부/노년부) 오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www.mjpc.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금요예배: 오후 8:00(토)</p> <p>Tel: (310)749-0577 352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p>베엘진교회</p> <p>담임목사: 김한효</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00(월-토) 성경연구예배: 오후 1:00 대학원예배: 오전 1:00 교무부예배: 오후 1:0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p>브리지교회</p> <p>담임목사: 장세경</p> <p>주일 1부찬양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영아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p> <p>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p>남가주삼성장로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대학부)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p> <p>www.samsungchurcho.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p>	<p>새천양교회</p> <p>담임목사: 변윤선</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www.newraiscurch.org / ysbyon@gmail.com Tel: (714)826-0100, Cell: (714)844-9377 6269 Ball Rd., CA 90630</p>	<p>새생명선교회</p> <p>담임목사: 김만수</p> <p>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p> <p>Tel: (818)952-2449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안디옥교회</p> <p>담임목사: 지윤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후예배: 오후 1:45 수요찬양예배: 오후 3:0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 교무부예배: 오전 11:00</p> <p>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hac.org 2720 Montrose Ave., Torrance, CA 91020</p>
<p>얼바인침례교회</p> <p>담임목사: 박경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www.l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요셉선교회</p> <p>담임목사: 정상호</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p>윌셔크리스천교회</p> <p>담임목사: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9:45(영아) 3부예배: 오전 11:00(대학부) 수요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찬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토요찬양예배: 365일 24시간 온론</p> <p>www.graceml.com Tel: (714)446-6200, Cell: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lacomestone.com Tel: (310)530-040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후예배: 오후 3:00(월-토)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g.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한국 선교사 163개국에 2만467명 파송

한국선교연구원, 2014 '한국선교현황' 발표

한국선교연구원(KRIM·문상철 원장)은 22일, '2014 한국선교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까지 해외로 파송한 한국 선교사는 163개국, 총 2만46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82명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1.90% 늘었다.

이번 현황에는 중도포기와 긴급철수 선교사 현황도 처음으로 공개해 녹리지 않은 선교사 현실도 감지할 수 있게 됐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 1월 16일까지 교단선교부와 파송·지원단체 162개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전화, 팩스로 실시했다.

KRIM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파송한 선교사 중 교단(노회 포함) 파송 선교사는 9306명, 초교파 선교단체는 1만779명, 지원단체(연구·훈련) 소속은 382명으로 나타났다. 파송국가는 163개국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10개국에 전체 선교사들의 50.6%가 몰려 있었다.

구분	현황
전체 파송 선교사	2만467명
사역 대상국	163개국
중도 포기	304명
긴급 철수	267명
전년대비 파송 증가율	482명(1.90%)
조사 대상 단체	162개

(자료:KRIM 재공)

10대 파송국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미국 인도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캄보디아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현지 정부가 선교를 제한하고 있는 이른바 '창의적 접근지역'에는 46.9%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일부 국가에 선교사들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포기와 긴급철수 선교사 수 치도 공개했다. 중도포기한 선교

사는 304명이었다. 이는 전체 선교사의 1.5%로 다양한 이유에서 본인 이 결정한 것이라고 KRIM 관계자는 전했다. 철수 선교사는 267명으로 비자발급 제한이나 강제 출국 등으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사역을 떠났다. 긴급 철수는 해마다 늘어 2012년 117명, 2013년은 215명이었다.

KRIM이 이번에 발표한 통계는 지난 8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발표한 통계(170개국, 2만6677명)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선교사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KRIM에 따르면 선교사는 선교단체의 회원이어야 하며 타문화권에서 복음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또 모국에 의존하는 재정 원칙으로 살아야 하며 본부 행정가와 선교단체의 감

독을 받는 자비량선교사(전문인)를 포함한다. 개교회 파송 선교사는 제외했다.

범아시아-아프리카대 학협의회 교수 모집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아프리카에서 대학을 설립,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역자로, 지도자로 양육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범아시아-아프리카대학협의회(PAUA)가 교수를 모집한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설립한 '쿠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기술 학부에서 근무할 교수요원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전문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영어강의가 가능해야 한다.

Y국, Y과학기술대학교(선교금지국가여서 이니셜 처리)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계공학 분야의 고체역학(1명), 유체역학(1명), 재료의학(1명) 교수를 모집한다.(010-6574-0191)

"북한 장마당서 성경책 팔린다"

북선교단체 세미나, 1000여곳... "복음전달 가장 적합" 평가

북한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장마당(암시장)이 교통 및 정보 유통 활성화로 북한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주일(부천장조교회) 목사는 북한선교 전문단체인 손과마음선교회(이사장 최덕순 목사)가 다음달 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북한 장마당을 통한 선교의 전략적 기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 목사는 북한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몰래 성경을 읽고 남반방송을 듣다 1998년 탈북했다.

그는 20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과 인터넷에서 1000여개에 달하는 북한 장마당이 국가 계획경제 실패 이후 상당수 주민 생계를 책임져 선교에 효과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장마당 형성에 따른 교통 자유화가 북한 복음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시장에 있는 모든 상품은 상당수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으로부터 밀수되고 있으며 이것이 전국의 시장으로 퍼지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으로 북한 주민들은 각 도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으며 교통 자유화는 북한 복음화에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심 목사는 주장한다.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각종 밀수품의 범람은 성경의 반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심 목사는 "장마당을 통해 북한 주민의 각종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이는 복음의 창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휘발유 밀수업자들과 함께 성경을 들여보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 부쩍 늘어난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은 정보 유통의 기동성을 가져와 선교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 사용은 최근 암시장에서의 매상을 올리는 데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물가 동향이나 금융거래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있다"며 "빠른 정보교환은 복음 전파에도 통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마당 장사꾼(일꾼)의 역할도 크다. 장마당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 장사꾼도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는 복음을 내륙 지방까지 전하는 귀중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상품을 팔고사는 복잡한 시장 환경은 악명 높은 북한 보위부 스파이들의 감시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심 목사는 "물건을 사고팔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리를 이탈하면 스파이들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 암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정보가 점과 같은 무속신앙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은 북 선교에서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한다. 무속신앙을 예수의 말씀으로 대체할 전략을 효과적으로 세운다면 빠른 속도로 북한 복음화가 진행될 수 있다.

심 목사는 장마당의 특성을 한국 교회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북한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 장마당이다. 오늘 한국교회도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용이한 북한의 장마당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하나님 앞에 소명을 다했다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단 활동 각별히 주의를"

예장합동 총회장 담화문...교회밖 성경공부 금지 당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은 21일 '이단·사이비에 대한 총회장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국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밖 성경공부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교단은 담화문에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은밀히 미혹활동을 하고 교회 밖 성경공부를 통해 정통교회 성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이단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가솔, 학업·직장 포기, 부모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교회 밖에서 열리는 정제 모를 성경공부나 신학원(무료 성경신학원) 공부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단들은 교회 예배 방해와 교회 잠입 등으로 기존 교회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특히 예장합동 교단 명칭과 로고를 건물과 주보, 전도지에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를 매입해 교단 교회로 위장하는 등 교단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예장합동은 이단의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나열하고 경계에 힘쓸 것을 부탁했다. 교단은 "캠퍼스에선 신학기를 앞두고 설문조사로 접근하며 선교·봉사·문화 단체로 위장해 지능적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최근엔 적성검사, 심리상담, 애니어그램 테스트, 목사·논술 강의, 힐링 콘서트 개최, 리본 공

예, 재능기부 행사, 타로카드점 보기 등 다양한 미혹활동으로 접근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장합동은 매년 2월과 9월 첫째 주간을 '이단 경계주간'으로 지키고 있으며, 총회 이단·사이비 피해대책조사위원회 홈페이지(2dan.kr)를 통해 이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공정회서 정책 제안 받아

한편 총회정책연구소운영위원회(위원장 장봉생 목사)는 공정회를 통해 교단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운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총회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공정회'를 개최해 교단 정책 및 정책연구소 활동방안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면서 "공정회는 전 총회장과 총신대 교수,

목회자 등이 강사로 나서며 전국 노회장과 서기, 총회실행위원 등이 참석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은 3월 12일 전북 정읍 성광교회(김기철 목사), 19일 대구 달서교회(박창식 목사), 26일 서울 총회회관에서 차례로 개최된다.

장봉생 위원장은 "총회정책연구소는 연구·개발한 정책을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며, 총회에서 채택되면 그대로 실행된다"면서 "교단 상설기구이자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총회정책연구소가 조만간 총신대, 총회세계선교회, 기독교신문 등과 함께 교단의 4대 주요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99회 총회에서 상설기구로 설립하기로 받았다. 박사급 연구원과 전문위원들이 신학 교육 행정 전도 선교 사회 등 10개 분야의 교단 정책을 연구·발굴할 예정이다.

예수의 생애 한눈에... '렛츠바이블 시즌2...'

개관 감사예배, 블루스퀘어 3층 특별전시장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각·공간적으로 재현한 성서체험전 '렛츠바이블(Let's Bible) 시즌2 더 메시아-예수, 그의 위대한 생애' 개관 감사예배가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블루스퀘어 3층 특별전시장에서 열렸다.

렛츠바이블은 읽기만 했던 성경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성경의

역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림과 영상, 조각 등을 망라한 전시문화 콘텐츠다. 왕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스도의 수난, 십자가의 길, 끌고 다 언덕, 무덤정원, 부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야외전시장에 재현된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의 무덤은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감동을 준다.

렛츠바이블 시즌1은 2004년 12월 20일 한국기독교선교 120주년을 맞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돼 3개월간 24만여 명이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제이앤디씨티인베스트(대표 이동원)가 주최하고 오너스코리아(대표 신동운)와 렛츠바이블(대표 김욱)이 주관하고 있다. 전시기간은 1년이다.

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번 성서체험

전을 통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해지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추천사에서 "성서체험전은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빛과 사랑의 대서사시"라고 밝혔다. 월간목회 대표 박종구 목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만나는 현장"이라고 추천했다(1670-1277·letsbible.com).

다일복지재단, 음주사고 관련자 보직해임

다일복지재단은 25일 음주사고를 일으킨 재단 소속 방모 목사를 보직해임하고, 이사장 최일대 목사 명의로 사죄문을 발표했다.

최 목사는 사죄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유명단체 소속 목회자, 음주운전에 경찰서 난동' 기사의 당사자가 임종을 맞는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인 '다일복지재단'의 시설장임을 확인한 후 즉각 보직해임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당사자도 어떤 결정이든지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드리며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했다"며

전 임직원들도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반성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서울 노원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방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음주측정 결과 방 목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1%였으며, 방 목사는 조사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웅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덴버에담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세환</p> <p>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 (월-금)</p> <p>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com</p>	<p>덴버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형만</p> <p>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혜근</p> <p>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www.kpcd.org</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봉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715)945-1512, Fax. (907)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엘교회</p> <p>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영):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총회청년부: 오전 10시, (월) 오전 11시 유치, 유년부: 오전 10:00</p> <p>Tel. (508)425-0288, Fax. (508)435-5467 2 Main St, Hixk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세례기도: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634-0900 / 0988(렉스칼)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앵커리지영리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영리문교회</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915)755-1490, 사행(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온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Ave.,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토)</p> <p>www.jkc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큰무리교회</p> <p>담임목사: 나광삼</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p> <p>Tel. (410)203-0516, 사행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rlscc.org</p>	<p>타코마 삼일교회</p> <p>담임목사: 정태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p> <p>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새생명교회</p> <p>담임목사: 임규영</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월/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월/영)</p> <p>Tel. (253)535-8207, 531-8424 Fax. (253)539-1423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창호</p> <p>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7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례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p>	<p>템프장로교회</p> <p>담임목사: 윤정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월-금) 세례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30(토)</p> <p>www.kpcpc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45 친선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선만</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선교의 창 (24)

선교를 위한 Modality와 Sodality의 상관관계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한국교회는 1960-70년대에 걸쳐 급성장하였다. 이때에 대학선교를 하는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으며 한국교회 일꾼들을 키우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전자는 모달리티(Modality)의 전통교회요 후자는 소달리티(Sodality)의 선교단체였다. 전통교회는 주로 부흥회를 일상화하며 목양에 힘썼고 선교단체들을 제자훈련이란 기치 아래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며 끈끈한 유대를 형성했다. 현대 이 두 구조는 보이지 않게 서로 반목하며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선교단체들은 당시 지역교회가 눈을 뜨지 못한 대학복음화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긍심이 컸다. 큰 이상을 향해 젊은이들이 어우러지면

티는 일반적으로 다양성, 존재를 강조, 사람 지향적, 여론에 의한 행정, 안정을 지향, 생물학적인 성장, 낮은 헌신 등이다. 이를테면 유대인의 회당이나 교회 같은 조직체를 말한다. 모달리티 지도자형은 통제와 보수, 조화와 일치를 우선으로 한다. 소달리티는 인위적 요소가 강하다. 주로 어떤 특정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로서 목표 지향적이다. 여기의 특징은 단일성, 일을 강조, 과업 지향, 비전에 의한 행정, 선교 지향, 2차 결단에 의한 성장, 높은 헌신이다. 정치적 파당이냐 학생 선교단체가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회원들에 대한 특수한 자격조건이 요구된다.

리가 다른 별개의 경쟁구도가 아니다. 그 차이는 신학과 신앙에 있지 않고 단지 기능상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란 모달리티로서 하나님의 인류구속을 성취해가는 중심기관이요 원동기이며 선교단체는 교회의 위임을 받아 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 파생된 소달리티적 역할이라는 것이다.

3. 두 구조의 상호 연관성

역사적으로 모달리티는 소달리티를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고, 소달리티는 점차 그 구조나 태도에 있어서 모달리티처럼 되는 경향이 있다. 중력이 전통교회에 있다는 말이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두 구조의 기능이 어떻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기독교도들 간에는 이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절한 관계에 대해 심각한 혼란이 계속되어왔다고 평가한다. 그는 해석하기를 모달리티로서 교회조직은 매우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구조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달리티 구조 외에 '소달리티'라는 또 다른 구조를 통해 일하셨음을 강조한다. 그는 이 두 구조가 모두 정당한 것이며 대위임명을 이루기 위해 서로 조화롭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하나님나라 확장에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대등한 관계로 서로 공존하며 유기적 협력이 일어나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와 학생 선교단체는 "세계선교"라는 넓은 관점에서 서로 존중하며 긴밀한 유대 속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교단체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전통교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대학 선교단체는 교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승장 목사는 "그 방편으로 지역교회가 하는 사역을 선교단체가 백화점식으로 다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영적 기관이다.

그러므로 두 구조는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야 한다.

서 자연스럽게 지역교회를 평화하고 독자적인 담을 쌓기도 했다. 따라서 지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대학선교 단체들을 상당히 경계하며 부담스러워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두 구조 가운데 의식 있는 사역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교회와 선교기관 간의 이해도도 넓어졌으며 상당히 건설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선교기관들은 폐쇄성이 강하며 일부 목회자들 중에는 대학선교기관들을 끔찍하게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과연 두 구조의 상생은 가능한가? 각각의 기능은 무엇이며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연합을 이룰 것인가? 이에 우리는 현실적인 이해타산이나 막연한 편견보다는 신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달리티 지도자형은 역동성, 창의성, 비전과 도전 등이다.

2. 선교단체의 뿌리

모달리티로서 교회와 소달리티로서 선교단체의 관계는 이해도에 따라 그 무게중심이 다르다. 일반적인 관점은 선교단체를 가리켜 '교회병행단체(Para-Church Organizations)'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루뎀(Grudem, W.A.)은 이러한 견해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선교단체가 교회와 병행(Beside)함으로 교회 밖에 있는(Outside of) 것이어서 서로 별 상관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영국교회에서는 선교단체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에서 '전도의 팔(Evangelistic Arms)' 노릇을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신학적 논구를 거쳐 영국 학원선교 연합단체인 UCCF문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학원선교 단체에 대한 UCCF의 평가는 너무 교회중심으로 치우쳐있다고 여긴다. 대학 선교단체가 단지 교회에서 캠퍼스 전도를 위한 특공대 수준의 위상으로 외소화 되는 것은 바람직 않다.

아무튼 교회와 선교단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영적 조직체임에는 틀림없다. 결코 부

Winter)는 두 구조의 기능이 어떻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기독교도들 간에는 이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절한 관계에 대해 심각한 혼란이 계속되어왔다고 평가한다. 그는 해석하기를 모달리티로서 교회조직은 매우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구조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달리티 구조 외에 '소달리티'라는 또 다른 구조를 통해 일하셨음을 강조한다. 그는 이 두 구조가 모두 정당한 것이며 대위임명을 이루기 위해 서로 조화롭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하나님나라 확장에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대등한 관계로 서로 공존하며 유기적 협력이 일어나야 한다고 여긴다.

4. 건설적 대안

그러므로 이제 교회와 학생 선교단체는 "세계선교"라는 넓은 관점에서 서로 존중하며 긴밀한 유대 속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교단체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전통교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대학 선교단체는 교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승장 목사는 "그 방편으로 지역교회가 하는 사역을 선교단체가 백화점식으로 다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1.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 모달리티(Modality)와 소달리티(Sodality)라는 두 개의 조직체가 있어왔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지역이나 혈연으로 구성된 자연적인 조직을 말한다. 이에 회원들에 대한 자격조건은 크지 않다. 이 조직은 사람 중심의 관계 지향적이다. 모달리

세계종교 문화뉴스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한국에도 IS자생대원 등장?

한국에서도 10대 소년이 IS(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마침내 국내에서도 자생 IS대원이 등장하였다는 뉴스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수개월 전 일본에서도 한 두 명의 청년이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정황을 일본경찰이 포착, 조기 저지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한국의 10대 소년이 IS에 가담한 것은 거의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안타까운 한국내 프랑스 테러 보도

연초 프랑스 잡지 '살리 에브도' 테러는 도리어 프랑스를 하나로 묶어주었고 테러에 결코 질 수 없다. 아니 표현의 자유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3백70만-400만명이 참여하는 프랑스 최초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프랑스는 다시금 1792년 자유·평등·박애라는 계몽주의의 슬로건을 강조하면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그 누구도 억제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보여주었다.

신학적으로 평가한다면 기독교를 말살하는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는 계몽주의 철학으로 자유와 관용을 강조하였다. 물론 부패한 카톨릭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 프랑스는 구라파에서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다(700만으로 추산). 하지만 프랑스의 관용 철학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내 언론보도는 왜 남의 종교를 과격하게 비판해 감정을 건드렸느냐는 식이다. 심지어 프랑스에서 알제리 이민청년들의 소외와 실업 등 사회문제가 저들을 테러로 몰고 갔다고 프랑스 사회의 모순을 지적한다. 중동의 이슬람 미디어 '알 자즈라'도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이 테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서구 국가치고 서구 식민지나 일본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되는가? 그 젊은이들은 식민지를 모르는 세대들이다. 한심한 분석이다. 너무 일방적이고도 편견적인 언론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작년 말 호주 카페에서의 테러, 작년 초 캐나다에서 일어난 이슬람 테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호주나 캐나다는 식민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북아프리카는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의 만행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인간성에 대한 엄청난 범죄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북아프리카에서 보코하람의 무자비한 살상은 식민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 김군이 만약 IS에 가담하였다면 그것도 우리 사회경제에 책임을 돌릴 것인가?



관에도 풍자만화

IS의 궁극 목표는?

이슬람교의 최종 목표는 유럽, 나아가서 전 세계의 이슬람화이다. 테러로 인해 프랑스 무슬림들은 수난을 당하고 무슬림 단체는 비난성명을 발표했지만 아랍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비난한다는 보도가 별로 없다. 코란은 테러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많다. 그러나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 침묵한다.

(14면으로 계속)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2015. 2.16~2.26 -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 9 - 터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2015. 3. 2~3.12 - 터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14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외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등목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가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선교 및 정담,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 E-mail : choigh1115@gmail.com
-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Olympic Blvd.
김스전기 한남제인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13면에서 계속)

구라파 이슬람화 전략에 대해 작년 12월 독일의 한 언론인이 이라크에서 IS대원들과 대담한 내용이 조선일보에 잘 보도됐다. 그들은 구라파를 이슬람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시간문제라고 했다. 교리적으로 이슬람은 자기들 종교나 창설자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불경이다. 그러나 살리 에브도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정치 모든 분야를 풍자하는 최고의 풍자만화 잡지다. 이번에 편집장이 살해되면서 500만부가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프랑스 국민들은 더 비판과 풍자를 멈추지 말라고 격려했다.

구라파의 위기

시카고대학 철학교수 라일라 마크 라일라는 서구문명이 기독교 토대 위에 세워진 것 같지만 절대주권의 성경적 하나님이 정치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게 유산시켜 서구문명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신랄하게 서구 계몽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신학의 오류를 비판했다. 사무엘 헌팅톤은 1993년에 이미 저서 '문명충돌론'에서 21세기 이슬람과 기독교적 서구의 문명충돌이 심각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난 24일 외신은 러시아를 괴롭히는 체첸나라의 80만 명이 살리 에브도의 만평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면서 교회가 수난을 당한다고 전했다. 구라파는 결국 이슬람과격주의와 싸워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 프랑스 수상은 프랑스가 이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슬람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고 해 큰 박수를 받았다. 벨기에도 테러범 2명을 살해하면서 2등급에 해당하는 경계령을 내렸다.

구라파 국가 시민권자 5천명이 지금 IS으로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귀국하면 더 큰 테러 가능성이 있어서 이들을 국외로 추방해 시민권을 박탈하면 국제적 여론이 악화되고 국내로 들어오면 온 국민이 공포에 휩싸이게 돼 고민이라고 한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많은 나라들은 인권과 국가안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금주 이코노미스트 특집이 보도했다.

“6년 이내 인도를 기독교인 없는 나라로 만들 것”

힌두교 단체가 2021년까지 인도를 기독교 없는 나라로 만들 것을 선언했다고 데일리 일간지가 보도했다. 인도에서는 Dha Zagan Samiti라는 극우단체가 다른 종교로 떠난 힌두교인들을 재개종 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 지도자 라제쉬와르 싱은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은 인도에 살 권리가 없다. 그들은 힌두교로 개종하거나 인도를 떠나야 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없는 인도를 만들 것이다. 우리의 적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힌두교를 멸절시키기 위해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힌두교의 신 Ram, Krishna, Chnaky가 그들을 쳐부수고

힌두교의 영광을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인도 기독교인들은 모디 수상의 등장을 몹시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힌두교 원리주의 정당인 최고 지도자가 수상이 됐으니 인도의 타종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는 열심히 인도의 경제 부흥에 정력을 쏟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이 수상으로 집권해 경제를 끌어올리면서 서서히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었던 전철이 있다.

미얀마 불교소식:

서서히 커가는 금불상(?)

미얀마 만달레이라는 구 왕도에 세계 최고의 금불상이 있다. 이 불상은 1902년 세워졌는데, 지금도 매일 사람들이 금을 사서 불상에 붙인다. 종이에 싸인 금은 불상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정부가 직접 판매한다. 그런데 남자들이만 올라가서 금을 붙일 수 있다. 아래 사진은 이 불상이 세월이 가면서 저절로 얼굴이 커진다고 하며 비교하는 사진을 걸어놓은 것이다. 불상은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여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매일 몰려들어 불공을 드린다.



왼쪽 얼굴은 1902년, 오른쪽은 20년 후. 얼굴이 커졌다...?

세계에서 기부금 일등국가: 미얀마, 미국

금년초 미얀마 언론은 미얀마가 미국과 함께 2014년도 기부금 일등국가였다고 크게 보도했다. 사실이다. 그러나 현지 학생들에게 그 기부금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니 절과 정치가들의 포켓에 들어갔다고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린다. 미국의 기부금은 전 세계의 불쌍한 사람들에게로 가지만 미얀마의 기부금은 거의 다 절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의 공덕사상은 윤리적이 아니라 절과 중을 잘 대접하는 것이 제일 큰 공덕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소승불교국가들이 도덕적 타락이 심각하고, 특히 부정부패지수에 따른 국가 순위는 하위에 속한다. 캄보디아가 해마다

175개 국가 중에 163등 혹은 164등, 미얀마도 160등 내외다.



절에서 기부하는 사람들, 식사 위해 줄을 선 1천명의 승려들

“불교는 관용의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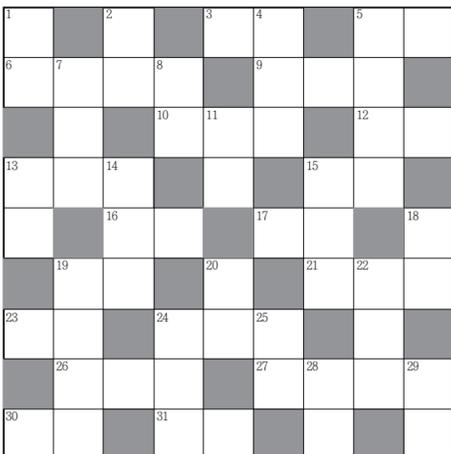
기독교에 비판적인 많은 지식인들은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불교, 힌두교 등 다신론 종교는 포용적 혹은 관용적이라고 주장한다. 만달레이 부근의 불교 마을에서 20명 미만의 학생으로 시작한 신학교가 있다. 그러나 그 불교 마을은 교회와 신학교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땅값이 싸서 부득이 그곳에 신학교를 시작했다.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 유치원을 세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환영한다. 신학교는 기술학교라고 알려지면서 계속하고 있다. 이 선교사는 만달레이에서 월 임대료 15만원의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다 털어 학교를 운영한다. 보통 만달레이에서 주거비는 적어도 50만원 이상은 필요하다.



오침하는 유치원생들

십자말 • Cross Word (66)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 3. 자세히 참고함(신4:32).
5. 더할 나위 없이 심함(시119:107).
6. 몸을 상하여 할례한 것을 자랑하는 당파(빌3:2).
9. 아라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숙영지(민33:41).
10. 신령이 몸에 접한 사람(신18:11).
12. 유대인으로 율법을 반대하고 자긍하며 도당을 모집하더니 대 해
13. 예서의 아내인데 헛족속 엘론의 딸(창26:34).
15. 천 갑절(신1:11).
16. 다니엘의 세 친구 중의 한 사람인데 이교도적 명칭(단1:7).
17.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림(삼하13:28).
19. 레위지와 게르손 자손 시므이의 둘째 아들(대상23:10).
21. 거리껴서 거처적거리는 물건(레19:14).
23. 음식이나 사물에 대하여 좋고 언짢음을 느끼는 기분(딤후5:23).
24.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민족최대의 명절(출12:11).
26. 모란과의 교목, 혹은 관목의 열매. 각기병 등의 약재로 쓰임(사28:25).
27. 그리스도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책.
30. 그 집안의 제일 뒷사람(암4:1).
31. 신자를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교역자(엡4:11).

<세로 푸는 열쇠>

- 1. 이스라엘의 사사로 힘센 자. 나귀 턱뼈, 사자, 여자, 여우와 유관(사13:24).
2. 예의를 차리지 못함(시31:18).
4.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민35:16).
5. 바니의 자손(스10:40).
7. 요시아 왕 때의 여 선지자 홀다의 남편. 살롬의 조부(왕하22:14).
8. 옷 이름을 극히 높여 일컫는데 쓰는 제3인칭 대명사(창16:5).
11. 맞물어서 닿음(창29:37).
13. 예수를 핍박하던 자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전도자가 됨.
14. 예루살렘 북쪽 아나돗과 계림 사이에 있던 베냐민의 한 성읍(사10:31).
15. 천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출18:21).
18. 슬플 때나 너무 기쁠 때 눈에서 나오는 물.
19. 임금을 호위하던 군대의 장(창37:36).
20. 보통보다 뛰어난(시97:9).
22. 슬퍼하여 흐느껴 우는 소리(욘30:31).
24. 감람과의 유황수, 유황을 짜내는 나무(야4:14).
25. 인력으로 곡식을 찧거나 뺨는데 쓰는 기구(민11:8).
28. 결혼하기를 약속함(신20:7).
29. 조심하라고 경계하여 타이름(출21:29).

십자말 정답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0.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비전 가꾸기(4)

Class 3-Prison

요셉의 광야학교에 있는 세 번째 교실은 감옥이었습니다. 창39: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토록 강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 피흘리기까지 싸운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그는 감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멋진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갈수록 험한 산골짜기였습니다. 억울하게도, 억울하게도 2년이란 세월을 감옥에 갇혀서

행이지만 오히려 당신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열을 내는 남편이라면 사모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사모는 평소에는 성도였다가도 어느 상황이 되면 애매한 존재가 되는 것이므로 사모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Test, Train

요셉은 이 교실에서는 기다림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신나게 꾸던 꿈조차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희망도 기대감도 가질 수 없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감옥살이는 가장 밑바닥의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색옷 대신 죄수의 옷을 입어야 했던 요셉의 모습은 어느 누가 보아도 꿈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How to Serve - 섬김, 신용(faithfulness)

(창40: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창41:25-36)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요셉은 감옥에서 섬김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많은 죄수들을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오히려 꿈쟁이라는 편지를 받았던 꿈꾸

잃어버림과 기다림 당하고 섬김과 신실함으로 훈련 사모의 자리는 가장 겸손할 수 있는 행복한 자리

젊음을 소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유효한 길은 바로 이 감옥이었음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특수감옥에서 정치인들이 갇혀있는 그곳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대신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눈치 챌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Curriculum - 잊어버림, 기다림

이 교실에서는 철저하게 잊어버림(forgotten)을 당하였습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40:23 "술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꿈을 해석해주는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부탁은 철저하게 잊어버림을 받았습니. 거기에서 느껴보는 좌절의 맛을 요셉은 맛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커리큘럼은 기다림(Waiting)입니다. 감옥에서의 3년은 다른 어느 때와 달리 길었습니(창40:14, 15).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 정의를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사30:18).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들에게 있어서 배신감은 아주 흔한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들을 애매할 때 가장 만만한 사모에게 뒤집어 싸우고 교회를 나가 버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불리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하면 제일 만만한 사모에게 넘기는 경우 사모들은 열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달려가서 따지기라도 하면 사모가 그런다고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 목사님이 사모의 사정을 이해하고 덮어주면 그래도 다

는 재주를 감옥에서는 남을 섬길 수 있는 은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자세로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죄수들에게 꿈 해석은 매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은사였습니다. 기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었고 보람을 느끼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 간수로부터 인정을 받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먼 훗날 나라를 다스리는데 절대 필요한 섬김의 도를 철저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창41:12,13)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Diploma - Glorify God by our Humility

요셉은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겸손은 사역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ID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자라도 교만한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을 겸손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총리대신이 됩니다. (창41: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모의 자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가장 겸손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교만하려 해도 교만할 수 없는 자리가 사모의 자리입니다. 조금만 교만할라치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져서 납작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에 사모의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두 종류의 근심(고후7:2-16)찬420장

바울은 두 종류의 근심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어떻게 다르게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10)인 경건한 슬픔은 신자의 여정에 항상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근심으로 신자는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생깁니까? 1)하나님에 대한 간절성, 2)진지한 마음, 3)분증, 4)노력함, 5)노력함, 6)노력함, 7)노력함, 8)노력함, 9)노력함, 10)노력함

사모할 꿈, 인내로 갈망함(longing) 6)사모 꿈, 관심 집중(concern) 7)열심 꿈, 의가 나타나기를 진지하게 기다림(readiness to see the justice done)이 생깁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으로 시작해 사망으로 마칩니다. 감사치 않는 마음과 태도와 같은 경건생활에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법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마침내 생명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화 성령의 자유(고후3:12-18)찬175장

바울이 본 새 언약의 영광에 참여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첫째, 모세가 본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영광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그 영광을 수간 없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둘째, 성령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주가 영이란 말은 승천하신 주님이 높은 신분으로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모두 주님

의 역사입니다. 그는 주님을 증거하려 오신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자유 꿈, 영적 해방을 가리킵니다. 셋째,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죄에서 죄로, 사망에서 사망으로 떨어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자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수 만족(고후3:5)찬257장

새 언약의 탁월함을 주장하는 사도는 하나님께로 오는 만족을 누리기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함으로써 비교적 우월성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적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모세, 아론,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를 그림자와 실체로 비교한 것처럼 복음에 없는 옛 언약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신자의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에 관한 근원적 문제로 나아가게 합니다.

니다. 둘째, "자기가, 하나님이나?"라는 문제는 예덴동산에서부터 벌써 일어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은 떴으나 자기에게서 나온 분별력은 사망을 가져왔고 생명나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먹은 신자의 분별력은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참 만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족케 한 것만이 신자를 만족시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만족으로 충만합니다.

목 성령(갈5:16)찬180장

정상적인 신자의 삶의 실마리는 성령과 육체의 선택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성령을 따르면 생명의 열매를 맺으나 육체를 따르면 사망을 맺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선택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는 그냥 있어도 육체의 부패성을 따르는데 익숙하여 항상 사망의 열매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15가지) 등을 나타냈습니다. 둘째, 그

러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을 따를 때 사랑,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은유, 절제를 맺도록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속의 육체의 소욕이 강할 때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경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을 따라 행함이 우리가 집중할 일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가기만하면 육체의 열매는 자연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약속된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금 자기 일을 살피라(갈6:11-18)찬213장

그리스도인의 영적생활은 자기를 살피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8). 첫째, 인간의 부패성(정욕 혹은 탐욕)은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씨를 심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육체를 심으면 사망, 성령을 심으면 영생(영생의 풍성함)을 반드시 얻습니다. 성령을 따라 기만 하면 어떠한지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둘째, 자기의 일을 살피야 합니다(4). 율법과 믿음의 첨예한 교훈을 강하게 주장

한 바울 복음은 신자의 실제 삶에서 환경이나 다른 조건보다 그 자신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아, 자기, 육신, 육체로 표현된 죄악의 부패성(살크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죄의 일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일을 살피 스스로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고도들의 경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영적 승리를 잘 알았습니다. 나의 갈 길은 자아부인에 집중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토 율법(갈3:24)찬235장

율법을 초등학교 교사로 비유한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율법과 복음은 구약과 신약,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해 그 불연속성을 설명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 받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죄를 치러할 뿐 아니라 율법의 요구인 의, 인, 신을 완성하는 독특성을 가집니다. 둘째, 초등교사가 아니라 초등교사로 비유한 것은 율

법을 통할 때 복음으로 쉽게 나가는 사실을 그림 그리듯 잘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전적 무력함을 인정해 자기 노력의 불가능성을 알고 항복하게 되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성령은 초등교사의 자상한 가르침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십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십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262-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Tel. (031)977-3389-9, Fax. (031)977-8382 (주)10-831(131-23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형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2-8676(교우회)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상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5: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예배: 오전 5:00 새벽기도: 오전 6:30 Tel. (82)2-2648-3191~3, (82)2-2646-3184 서울시 강북구 북동2동 520 (14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131-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삼성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곡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길 29(삼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진해구 양곡동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5:00 금요일예배: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송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4동 294-10(1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북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시라큐스한인교회 유스 4명 마틴루터킹상 수상 난민 어린이 대상 “로다이서머캠프” 자원봉사로

뉴욕 주에 있는 시라큐스한인교회(담임 지용주 목사) 유스그룹 4명이 지난 18일 개최된 마틴루터 킹 목사 추모행사에서 Martin Luther King Jr. Youth Unsung Heroes Award를 수상했다.

시라큐스 대학 캐리어돔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은서, 유동걸, 유성민, 우태희 등 4명은 시라큐스한인교회가 운영하는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로다이서머캠프”(Lodi Summer Camp)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이 상을 받게 됐다.



이 캠프는 지난 2010년 시작한 이후 해마다 100-12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그 중의 80-90명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지용주 목사의 목회비전에 따라 차세대들을 키우며 복음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동 교회는 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여수론 기독교

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7년전 이 사역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일반인 부문에서 Martin Luther King Jr. Unsung Heroes Award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통해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인 유스 부문에서 이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아가 유스들을 통해 이 상을 다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일꾼들을 축복해주셨고(신 14:29)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사32:8). 이 상을 통해 우리의 유스들이 앞으로도 믿는 자로서의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한 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을 받기 몇 주 전에 했던 작은 결심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주일예배와 교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이 짜여진 외부 활동을 이제는 그만하기로 부모님과 결정했던 일이 있었습니

다. Summer Camp도 기쁨으로 기대 해봅니다.

Alex Yoo (Jamesville-Dewitt Middle School, 7학년)

우 리 교 회 를 통 해 만 나 게 된 L o d i Summer Camp에 서의 경 험 들 은 정 말 로 축 복 된 시 간 이었 습 니 다. 캠프를 통 해 새 로 운 것 들 을 경 험 할 수 있 었 고, 캠프에서 만났던 어린이들 을 통 해 많 은 것 을 배울 수 있 었 습 니 다. 나 는 선 생 님 으 로 그 지 리 에 있 었 지 만 하 나 님 께 서 는 언 제 누 구 를 통 해 서 든 우 리 에 게 귀 한 것 들 을 가르 쳐 주 신 다 는 것 을 알 수 있 었 습 니 다.



제 가 이 캠프를 통 해 가 장 크 게 배운 것 은 바 로 하 나 님 께 순 종 하 는 것 이었 습 니 다. 이 캠프를 하 면 서 교 사 로 서 나 는 다 른 선 생 님 들 과 함 께 참 여 하 는 어 린 이 들 을 위 해 정 말 재 미 있 고 즐 거 운 활 동 들 을 많 이 준 비 했 습 니 다. 그 어 린 이 들 은 단 지 선 생 님 의 말 씀 을 들 고 따 르 기 만 하 면 그 모 든 것 들 을 누 릴 수 있 었 습 니 다. 그 러 나 선 생 님 의 말 씀 을 들 지 않 고 자 기 마 음 대 로 하 려 는 어 린 이 들 이 있 었 습 니 다. 그 들 을 보 면 서 ‘정 말 이 아이 들 은 고 집 스 럽 고 제 밋 대 로 구 나. 내 말 을 들 고 따 르 기 만 하 면 이 많 은 것 들 을 즐 겠 게 누 릴 수 있 는 데...’라 고 생 각 했 습 니 다.

이 생 각 을 하 자 마 자 내 마 음 속 에 들 리 는 소 리 가 있 었 습 니 다. 바 로 하 나 님 의 마 음 이었 습 니 다. 하 나 님 께 서 는 나 를 위 해, 우 리 를 위 해 놀 라 운 것 들 을 계 획 하 고 계 신 데, 우 리 는 여 진 히 하 나 님 의 말 씀 에 불 순 종 하 고 있 는 것 이었 습 니 다. 그 래 서 그 놀 라 운 것 들 을 마 음 께 누 리 지 못 하 고 있 는 우 리 의 어 린 석 은 모 습 을 보 게 되 었 습 니 다. 그 리 고 이 를 깨 달 고 난 후 에 는 정 말 겸 손 한 마 음 으 로 아이 들 과 함 께 할 수 있 었 습 니 다. 하 나 님 을 아 직 알 지 못 하 는 이 들 에 게 하 나 님 의 사 랑 을 보 여 주 고 나 누 어 줄 수 있 었 습 니 다. 예 레 미 아 29:11 말 씀 과 시편 32:8 말 씀 을 기 억 했 습 니 다. 하 나 님 께 순 종 할 때 주 시 는 축 복 이었 습 니 다. 그 래 서 나 의 진 정 한 Unsung Hero 는 예 수 그 리 스 도 이 십 니 다.

Lodi Summer Camp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시라큐스한인교회 지용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New York Bible Conference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01/08-01/10). 이 컨퍼런스는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로 업스테이트 뉴욕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을 주시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한 내 목표로 살기보다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은서 (Eagle Hill Middle School 7학년)

이 상 을 받 게 해 주 신 하 나 님 께 정 말 로 감 사 드 린 니 다. 해 마 다 우 리 교 회 에 서 하 고 있 는 난 민 어 린 이 들 을 위 한 로 다이 캠프의 스템으로 참석했던 것을 통해 이 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캠프에서 우리는 Bible class, Art class, Game class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들은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 난민 어린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이 정말로 작은 것에도 많이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도와 주려고 참석했지만 오히려 내가 그 친구들을 통해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Lodi

Summer Camp도 기쁨으로 기대 해봅니다.

“괴분한 상, 더 하나님께 헌신 다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겠다” “난민아이들 통해 더 배워” “하나님의 마음 알게 됐다”

이번에 상을 수상한 수상자 한 명 한명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우태희 (Living Word Academy, 10학년)

작 년 여 름 우 리 시 라 큐 스 한 인 교 회 에 서 하 는 Lodi Summer Camp에 참 여 했 습 니 다. 이 캠프는 미국으로 온 난민 어린이들에게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학교입니다. 찬양과 율동, 성경공부, 미술활동, 게임 등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Homeroom teacher로 섬겼던 5일 간의 캠프를 마치고 아이들이 집으로 간 후 캠프에 참석했던 흑인 여자 어린이와 그녀의 어린 3명의 남동생들을 보았습니다. 기

쁨이 가득한 웃음과 함께 동생들을 챙겨주는 모습이 참 대견스러웠고 행복해보였습니다. 남자아이들 중 큰 형은 나이에 비해 덩치가 크고 잘 웃는 아이였고, 막내는 자주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말 안듣는 개구장이었습니다.

나는 집이 가깝다며 데려다 달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형과 함께 목마를 태우고 손을 잡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캠프의 마지막 행사까지 끝난 후여서 많이 피곤했지만, 아예고 아프고 많이 더워 불평이 나올 법도 했지만, 아이들의 웃음과 신난 모습은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돌아오면 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뜨거운 여름의 맑은 하늘을 보며 가슴 또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게 한 것이 없는데도 마음이 뿌듯했고, 정말 내년에도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교회 공동체의 작은 일원으로서 이러한 섬김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지용주

목사님, 배수향 사모님께, 그리고 함께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Martin Luther King Jr. Unsung Heroes Award를 받아야 마땅했던 많은 분들이 계심에 불구하고 상을 받은 저는 이 상이 제게는 너무나 과분한 상인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더욱 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실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동걸 ((Fayetteville-Manlius High School, 9학년)

이 상 은 하 나 님 의 크 리 스 마 스 선 물 이었 습 니 다. 솔 직 히, 내 가 무 엇 을 열 마 나 열 심 히 해서 이 상 을 받 았 는 지 자 랑 할 것 이 없 습 니 다. 아 무 래 도 하 나 님 께 서 는 아 무 것 도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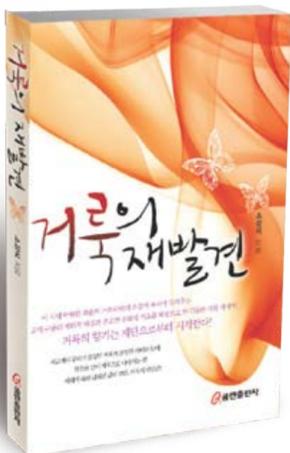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룩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

레위기 속에 감춰진 값진 보화, 거룩의 재발견!

이 시대 탁월한 복음의 스토리텔러 소강석 목사가 들려주는
철저한 레위기 본문의 분석과 견고한 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감동의 거룩 시네마!

거룩의 향기는 제단으로부터 시작한다!



259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소강석
지음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한번은 읽어야 할

완전한, 참 거룩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필독서!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예린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기 위해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션 루터 킹 페어리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